

溪巖 金垓의 삶과 文學

黃 涘 江(檀國大)*

• 目 次 •

- | | |
|----------------|--------------|
| I. 들어가는 글 | III. 溪巖의 詩世界 |
| II. 溪巖의 生涯와 人物 | IV. 맺는 글 |

I. 들어가는 글

일찌기 영남을 비롯한 여러 지방에서 구전으로 들은 바 있는 '눈 뜨고 장님 행세한 선비'의 이야기는 깊은 인상으로 필자의 뇌리에 지금껏 남아 있다. 어지럽고 험한 세상을 만난 고결한 선비가 志操를 헐지 않고, 깨끗이 살아가자니 어쩔 수 없는 처신이었던 것으로 이해되었다. 1950년대 경북 울진군 평해에서 어떤 古老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이렇다.

光海君 때 과거에 합격하고 벼슬을 하였으나, 권신들의 농간으로 나라 형편이 점점 어지러워지는 험한 꼴을 본 선비는 벼슬을 버리고 시골로 내려왔다. 그로부터 그는 눈 뜬 장님 행세를 하며 세상을 등지고 살았는데, 하루는 막역한 친구가 찾아와 이야기 나눈 끝에 자리를 일어나 돌아가는데 지팡이를 놓고 가는지라, 그것을 본 선비는 무심결에 '자네 지팡이를 갖고 가야지' 하고 말을 건넨 것이 참 장님 아님이 드러날 빌미가 될뿐 하였으나, 친구는 그의 깊은 속마음을 헤아려, 밖에 소문을 내지 않았다고 했다.

* 본고는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와 안동전통문화선양사업회 주최 안동문화권 전통문화 심포지엄에서 구두발표하고, 동 심포지엄 보고서(2001년 2월 22일.), 기타에서 발표한 논문의 內容과 註를 大幅 補強하고, 인용문(漢詩)의 翻譯을 새로 붙인 논문임. (筆者)

최근에 필자는 林漢鎔씨로부터 그가 1962년에 金晶 師傅(1990-1965)로부터 들었다고 하는 '눈 뜨고 장님 행세한 선비'의 이야기를 傳聞하였던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눈 뜬채 장님 행세를 하는 선비에 대하여 의혹을 갖게 된 官에서 그 진위를 가리기 위해 한 번은 그가 평소 잘 다니는 행길에 쇠뿔을 깔아 놓고 어찌하는가 살폈더니, 피해 가지 않고 그냥 쇠뿔을 밟고 지나갔다고 하며, 또 한 번은 바늘 묶음을 느닷없이 선비의, 뜨고 있는 두 눈 앞에 찌를 듯이 드리웠더니,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고 하며, 그제서야 참 장님으로 알고, 의심을 버렸다고 했다.

위의 이야기들은 光山 金氏 문중의 溪巖 金垞선생의 志節을 기리는 민간전승으로 널리, 오래 인구에 회자되어 내려온 설화들이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김령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그 동안 文, 史, 哲의 어느 분야에서도 본격화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계암의 개결한 행적과 올곧은 정신세계는 오늘의 우리 현실을 냉정하게 조감케 하고, 나아가 민족 정체성 회복의 당위를 깨우칠 정신문화적 자산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필자는 溪巖集²⁾을 주자료로 삼고, 주변의 객관적 관계문헌들을 보조자료로 원용하면서 金垞의 삶과 그의 문학세계, 특히 시세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의도에도 불구하고, 필자 자신의 능력의 한계와 문헌 자료상의 제약으로 하

1) 安東 所在 光山 金氏 禮安派 集姓村의 어린이들은 지난날 자라면서 곧잘 어른들로부터 눈 뜨고 장님 행세한 자기 선조 '당달봉사'(金垞)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고 하며, 龍仁의 '김량 장터'는 金垞이 落馬하여 다리를 못 쓰게 된 事實에 부쳐 지어진 地名이라고 한다. (金容稷교수 談)

눈 뜨고 장님 행세한 선비의 설화는 金垞 이전에 趙云仵(1332-1404)에게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설화적 전개와 귀결은 매우 다르다.

高麗宰臣趙云仵知時將亂 謀欲避患…(中略)…詐得青盲疾 辭職居家 其妾與公之子相私 每戲於前 公不露形色者數年 及亂定 忽措目曰 吾疾愈矣 率其子遊於江上 數其罪而投之江 (cf. 慵齋叢話 卷3)

2) 本集은 金垞의 玄孫 絃, 陶山書院의 院儒 李世澤, 李世源, 金重玟 등이 家藏草稿를 蒐集, 編次하여 1772年 陶山書院에서 木板 刊行한 初刊本으로 6卷 3冊이다. 本稿는 民族文化推進會 『韓國文集叢刊, 84』(標點 李承昌, 監修 金喆熙)에 의하였다.

여, 당초 의도한 바에 크게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바이다. 한 시대를 孤節로 보내고 간 逸士의 거룩한 자취와 높은 뜻을 행여 흐리게 하거나 욕되게 하지 않을까 심히 저어한다. 질정 있기를 바란다.

II. 溪巖의 生涯와 人物

1) 傳記的 考察

溪巖³⁾의 생애를 고찰함에 있어, 權愈⁴⁾와 李光庭⁵⁾의 行狀 2篇⁶⁾과 權愈의 墓碣銘 并序⁷⁾가 문집에 수록되어 있어 큰 도움이 된다. 위의 3편을 두루 참고하여 그의 생애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金垓의 字는 子峻으로, 그 웃대는 멀리 신라 金閔智를 시조로 한다. 그에 이르는 계보는 아래와 같다.

-
- 3) 號 '溪巖'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유래가 있다.
宅傍有巖臨溪 可坐而遊 因以爲號焉 (溪巖集 卷6, 行狀 李光庭)
先生宅傍有溪 溪濱有巖 先生時逍遙其上 自號溪巖 (溪巖集 卷6, 墓碣銘并序 權愈)
- 4) 權愈 (1633-1704) 字 退甫. 號 霞谷. 本貫 安東. 1665년(顯宗 6) 別試 文科 丙科 及第. 1689년(肅宗 12) 己巳換局으로 南人이 집권하자 大司諫, 藝文館 大提學 등 要職 歷任. 知經筵事에 올랐으나, 1694년 甲戌獄事로 西人이 執權함에 流配되었으나, 1697년 放送되었다. 詩文에 능하였으며, 藝文館 大提學으로 있으며 『仁敬王后誌』를 저술하였다.
- 5) 李光庭(1552-1627) 字 德輝. 號 海臯·訥翁. 本貫 延安. 1573년(宣祖 6) 進士試에 合格. 1590년 教官으로 增廣文科 丙科 及第. 正言, 禮曹佐郎, 典籍을 거쳐 大司憲, 1602년 吏曹判書로 있을 때 奏請使로 明나라에 다녀옴. 光海君 때 戶曹判書로 任命되었으나, 病을 이유로 辭退. 1623년 仁祖反正後 다시 吏·工·刑의 判書가 되었으나, 辭退. 1626년(仁祖4) 開城留守, 다음해 丁卯胡亂 때 江華에 들어가 病死. 宣祖 때 清白吏에 錄選되었다.
- 6) 溪巖集 卷6, 附錄에 權愈 撰 行狀(1-9 表張), 李光庭 撰 行狀(9 裏-20表張)이 수록되어 있다.
- 7) *Ibid.*, 權愈 撰, 墓碣銘并序(20表-25裏張)

金閔智-6世 味鄒-20世 興光-○-吉(高麗 三重大匡司空)-12世(麗朝 相繼爲相)-天利(朝鮮 策佐命功, 密直使)-3世·高祖 淮(縣監, 早歿 贈參議)-曾祖 孝盧(→禮安 烏川里, 選進士, 不仕, 贈參判)-祖 綏(生員, 贈參判)-考 富倫(號 雪月堂, 生員, 縣監)-垠-長子 耀亨(無子 入繼)-碩昌(無子 入繼)-尙晉

金垠은 1577년(선조 10년) 윤8월 10일 漢城府 鑄字洞에서 父 富倫⁸⁾과 母 平山 申氏(副護軍 壽民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다. 타고 난 품성이 영특하여, 5세에 글을 읽을 줄 알았고, 수년 사이에 經史의 뜻을 통달하여 깨쳤다. 退溪를 섬겨 正學에 뜻을 두고 학문을 힘썼던 아버지 富倫은 일찍부터 아들 垠을 正理로써 이끌어서 가르치니, 俗學은 개의치 않고, 오직 父教를 따라 행하여 鄉黨의 칭찬을 들었다. 그리하여 14, 5세에 학문과 문장으로 이름이 드러났다.⁹⁾ 일찍이 陶山學舍에서 여러 선비들을 따라 經義를 강론하였는데, 그 품계가 명쾌하고, 쪼개어 풀이함에 막힘이 없으니, 장로들이 차탄을 마지 않았다고 한다. 16세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니, 여러 해 부모를 따라 옮겨 다니며 피난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모 봉양하기를 꺾하지 않았고, 겨울을 아껴 학업에 잠심하였다. 18세 때 南陽 洪氏(正字 思濟의 딸)와 혼인하였다. 21세때 정유재란을 만나, 이듬해 정월 마침 체찰사로 영남에 와 있던 柳成龍을 뵈러 먼 길을 걸어 兵府로 갔던 垠은 行營에서 明의 總兵인 吳惟忠과 遊擊 盧得功을 만났다. 이들은 垠의 容止 深重함에 敬服하여 한동안 자리를 함께 하고 이야기하였고, 돌아가서 글로 뜻을 전하였는데, 그를 외국의 연소한 儒生으로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 해 가을, 22세 되던

8) 金富倫(1531-1598) : 號 雪月堂. 李滉의 門人으로, 1555년(明宗 10) 司馬試에 합격하고, 1572년(선조 5) 遺逸로 천거되어 集慶殿 參奉에 除授되었으나, 赴任치 않았다. 1585년(선조 18) 全羅道 同福縣監을 지냈다. 1592년 壬辰倭亂을 당하자 家産을 털어 鄉兵을 일으켰고, 奉化 假縣監으로 宣武에 힘썼다. 金誠一·李滉 등과 함께 道義를 닦고, 晩年에는 鄉里에서 後進 養成에 專念하였다. cf. 張弼基, 「『溪巖日錄』 解題」, (國史編纂委員會, 『韓國史料叢書 40, 溪巖日錄』, 1997), p.vii

9) 14세 때(1590. 宣祖 23) 垠이 父親의 良馬를 밤에 몰래 타고 安東 妓房에 갔다가 새벽에 돌아오곤 하였다. 이를 알게 된 父親은 눈물로 아들을 訓戒하였는데, 그 뒤로 다시는 나아가지 않았다. 그러자 妓女가 찾아와, 한번만 만나기를 청하였으나, 부친의 訓教를 저버릴 수 없어, 끝내 문을 열지 않았다. 그 뒤 그는 平生토록 女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한다. (cf. *Ibid.*, p.viii)

선조 31년 가을, 부친 雪月堂의 상을 당했고, 이듬해 봄 모친의 상을 당했다. 그는 居喪과 喪祭를 한결같이 예법대로 치렀다. 그 과정에서 몸이 여위어 위대한 지경에 이르렀으나, 3년이 지났어도 悲慕하는 마음은 조금도 쇠하지 않았다.

광해군 4년(1612) 임자, 36세에 文科 丙科에 及第하여 權知¹⁰⁾承文院 正字¹¹⁾가 되었다. 4년 뒤 광해군 7년(1615) 을묘 겨울, 39세 때 승정원 注書¹²⁾가 되었다. 당시 집권하고 있던 北人의 用事에 실망한 그는 다음해 1616년 봄 벼슬을 버리고 禮安으로 내려갔다. 그 해 여름 다시 注書로 불렸으나, 사양하고 나가지 않았다. 그는 벼슬하면서 광해군의 昏政을 보고, 조정에 몸담고 있기 심히 괴로워 하였던 터이다. 1618년(戊午) 仁穆大妃를 폐하고, 陰臣이 정치를 擅斷하면서, 나라가 크게 어지러워짐에 그는 세상에 뜻을 끊어 버리고, 집에 屏居하였다. 평소에 서로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 時議에 附和하여 이익을 구하는 이와는 교제를 끊었다. 혹 찾아와 만나기를 청해도 거부하고 들이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溪巖을 원망하고, 험뜯는 말을 하고 다녀도, 그는 毅然히 介意치 않았다. 그런 중에도 院舍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講學하였고, 혹 山水間에 소요하다가, 뜻에 드는 곳이 있으면 자리하고 술을 마시고, 거문고를 타면서 마음을 달래었다. 세상의 禍福 利害가 그의 마음을 괴롭힐 수는 없었다. 이와 같이 지내기 수년에 政院에서 承政院日記를 修正하면서 垆을 재삼 불렀으나, 사양하고 가지 않았다. 이에 本道守令에게 영을 보내어 최축하므로 부득이 상경하였으나, 都城에는 들어가지 않고, 城外에 머물러 있으며, 修訂을 마치고 곧 내려갔다.

1623년 癸亥反正으로 光海君이 물러나고, 仁祖가 즉위하였다. 卽日로 인목대비는 환궁하고 복권되었다. 조정에서는 垆의 곧은 處身을 기려서 六品으로 敍品하고, 성균관 직강, 이어 사헌부 지평을 제수하였다. 이 때 그의 나이 47세였다. 부름을 받고 상경하던 그는 중도에서 病을 稱託하고 돌아왔다. 왕은 그의 遞職을 허락치 않고, 調理하고 올라오게 하였다.

10) 權知 : 高麗·朝鮮 때 臨時職 앞에 붙이던 말

11) 正字 : 弘文館·承文館·校書館 등의 正九品官으로 定員은 2명이었다.

12) 注書 : 門下府(朝鮮國初)의 承政院에 둔 正七品官. 注書가 事故時는 假注書를 임명하였다.

다음해 1624년 봄 李适의 亂으로 叛軍이 서울을 범하니, 인조가 公州로 播遷하였다는 소식에 사태의 심각함을 깨달은 그는 급히 서울을 향해 달려가 교외에 다달으니, 난은 이미 평정된 뒤였다. 그는 맏아들 耀亨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고, 왕께 올릴 上書를 맡기고, 자신은 禮安으로 일찍 돌아왔다. 왕은 耀亨이 올리는 상서를 받아보고, 垚이 병고에도 불구하고 난중에 취한 처신과 성품을 매우 가상하게 여겨, 장려하는 뜻으로 批答을 내렸다.¹³⁾ 그러나, 당시 이 비답에 대하여 獻納 金時讓¹⁴⁾은 '科擧를 거쳐 올라온 朝臣은 野의 선비(林下士)와 자취가 달라야 하는데, 金某는 아들을 시켜 대신 上疏하게 하여, 부당하게 그를 獎勵하고 허락하는 聖諭를 얻었으니, 그를 林下士와 같이 대우하여, 그 職을 파하고, 이미 내린 批旨는 還收하시옵소서.'¹⁵⁾ 하였다. 그러나, 仁祖는 이를 不許하고, 다만 推考할 것을 말했다. 6월에 典籍을 옮겨 刑曹正郎을 임명하였으나, 둘 다 취임하지 않았다. 8월에 義州判官을 除授하니, 사람들은 모두 그 歸趨를 염려하고 두려워하였다. 여러 勳貴들은 평소 저들과 어울리지 않은 그를 미워하여, 먼 任地에 職을 주어 어찌하는가 그 결과를 보아 律로써 다스리리라 별렀던 터이다. 그럼에도 그는 끝내 부임치 않았고, 왕 또한 그를 죄 주지 않았다. 왕은 終始 그를 우대하여 禮曹正郎에 임명하였다. 그가 就任하지 않으니, 朝議가 떠들썩하였다. 梧里 李相國(元翼)이 그에게 권하여 病狀을 밝혀 陳疏하게 하니, 疏文을 써 갖추었으나, 올리지는 않았다. 이로부터 그는 中風을 일컫고, 手足을 움직일 수 없노라 하고, 자리에 누워 빠졌다. 家人과 子弟들 역시 어찌된 병인

13) 答曰 省疏 具悉爾懇 爾父力疾上來 予甚嘉喜焉 勿以疾病爲辭 調理入來以副予望(溪巖集 卷4, 疏, 以子耀亨名陳病情疏)

14) 金時讓(1581-1643) 號 荷潭. 光海君 3년 全羅道都事로 鄉試를 주관하면서 詩題에 王의 失政을 비유한 文題를 출제하였다 하여 鍾城에 流配, 1616년 寧海에 移配되었다가 1623년 仁祖反正으로 풀려나와 禮曹正郎을 비롯, 여러 직책을 두루 지냈다. 그는 金垚의 '使子代疏'와 이에 관한 仁祖의 批答을 신랄하게 批判하였던 터이나, 後日 그는 世外之士 金垚를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彈劾했던 자신의 실수를 솔직히 고백하고, 돌이켜 溪巖의 人品을 높이 평가하였다. 金公時讓歎曰 皎皎乎人也 向吾劾之 彼必笑我執世例而論世外士也 乃今覺吾失(溪巖集 卷6, 附錄, 行狀 權愈)

15) 金時讓啓言 金某既取第升朝 非待價者也 使子陳疏 不當得爲聖諭獎許 待之若林下士 請罷職 還收批旨(溪巖集 卷6, 附錄, 行狀 權愈)

지를 알지 못하였다. 遠近의 人士들과 地方 守令들이 金垞이 風을 앓는다는 소식을 듣고, 잇달아 찾아와 問候하니, 비록 禮貌는 예와 다름이 없되, 病이 심하여 禮할 수 없음을 陳謝하였다. 여러 勳貴들은 여전히 그의 병이 거짓 병이 아닌가 의심하여, 사사로이 本道의 方伯에게 그를 정탐하여 줄 것을 청하곤 했다. 方伯들은 직접 집으로 그를 찾아와 보니, 金垞은 그 때마다 앉아서 맞았다. 이들은 이를 보고 돌아가, 그의 병이 거짓 아님을 이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흘러간 10여년간 그에게 除命이 내리지 않은 해가 없었다. 直講, 禮曹正郎은 무릇 두세번이요, 獻納 兼 輔德을 한 번, 掌令, 執義, 輔德을 두번, 司諫은 일곱번에 이른다. 그러나, 그는 위의 어느 官職에도 就任하지 않았다. 金垞에 대한 仁祖의 信任이 얼마나 두텁고 확고했던가를 짐작케 한다.

1636년(인조 14) 겨울, 그의 나이 60세 때 淸兵이 猝地에 漢京에 쳐들어 왔다. 仁祖는 南漢山城에 들어가고, 山城은 淸兵의 包圍로 매우 급박한 상황에 처하였다. 諸道에서 올라온 兵士들이 잇달아 敗亡하자, 여러 地方에서는 고을 안의 선비들이 倡義兵을 모집하여 官軍을 도우러 나아갔다. 金垞은 倡義兵을 위하여 家財를 기울여 兵食을 후히 도왔다. 다음해 봄 仁祖는 南漢山城을 나와 淸에 降伏하였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金垞은 禮義之國 朝鮮이 오랑캐에게 굴하고, 明나라에 대한 事大의 義理를 다하지 못한 것을 痛嘆하고, 이에 悲憤하는 글과 詩를 토해 냈다. 이 해(1637) 가을에 司諫을 除授 받았으나, 나가지 않았다. 그 이후로는 朝廷에서도 그의 뜻을 알고, 다시는 除命을 내리지 않았다. 이 때 그의 나이 이미 61세였다. 그는 문을 닫아 걸고 혼자 처했으며, 병으로 팔 다리를 움직이지 못한다 하고, 집 밖에 나가지 않았으며, 客이 와도 貴賤을 가리지 않고, 모두 앉아서 맞았다. 사람들은 그의 뜻이 참으로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고, 그럴수록 그를 심상치 않게 여겨, 더욱 높이 우러러 보았다.

1641년(仁祖19년, 辛巳) 3월 21일 溪巖 金垞은 享年 65세를 一期로 卒하였다.

2) 疾苦와 身退

溪巖이 앓았던 '病'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아마도 이 물음이야말로 그의 人生을 푸는 主要한 話頭가 아닐까 한다. 그의 文集은 詩作品을 樣式別, 年度順으로 收錄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25세 때 쓴 詩에서 '오랜 病으로, 여러 해 자리에 누웠더니/벗이 오매 하루가 다하도록 이야기하였네.(病久經年臥 朋來盡日談)…(후략)'¹⁶⁾라 쓴 句節이 보인다. 이로 미루어 그는 20代의 어느 기간 病臥中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뒤에도 자신의 病을 말한 詩篇이 간간 나타나고 있다.¹⁷⁾ 49세에 지은 詩의 題詞에서 '賤生의 疾患이 자주 劇하여 出入할 수 없는 지가 이미 旬餘가 된다.'¹⁸⁾고 하였고, 55세의 3월 3일에 지은 詩에서 '나무가지 끝의 작은 꽃봉오리 등글고,/ 芳草는 有意한 듯./ 물가에 푸른 欄干,/ 病人은 門을 나오지 않고,/ 兀然히 跣坐하고 마음 쉬더라.'¹⁹⁾라고 읊었고, 같은 해 寒食에 읊은 詩에서는 '여러 해 重病을 안고(經年抱沈痾)'²⁰⁾라는 詩句가 보인다. 그의 病은 꽤 오래된 宿病로, 不治에 가까운 病이었던 듯하다. 李仲明²¹⁾에게 보낸 편지에서 '賤疾은 비록 靜養하며 調攝하는 것으로 일삼았던 터이나, 괴로움은 옛날보다 더해가니, 病源이 이미 깊음을 알겠습니다. 藥의 效力도 薄한 즉 부질없이 杜門面壁하되 一分의 效果도 없습니다.'²²⁾라고 하였

16) 立春(溪巖集 卷3, 五言絕句)

17) 溪巖 30代 作品에서 身病을 示唆하는 詩句를 아래에 들었다. 40대 이후는 번다하여 들지 않는다. 病來時買藥 眠罷或煎茶(春帖), 漸安除舊疾(偶書), 三冬閉戶病何久(詠雪)

18) 賤疾比劇 不能出入 已將旬餘(溪巖集 卷1)

19) 枝頭微蕾團 芳草如有意 水邊青欄干 病人不出門 兀然跣坐安(溪巖集 卷1, 三月三日)

20) 溪巖集 卷1, 寒食

21) 李仲明 : 李燦(?-1654) 字 仲明. 醫學者. 本貫 龍宮. 獨學으로 醫術을 연구하여 의학자로 이름을 떨쳤다. 1632년(仁祖 10) 御醫의 治療로 效험을 보지 못한 仁祖의 病을 고쳤다. 그 후 司禦·宗簿寺 主簿·工曹佐郎·軍威縣監을 역임하고, 病으로 사퇴하였다. 뒤에 內醫院에서 御藥을 바칠 때 다시 불러, 나갔다가 工曹正郎으로 起用되고, 이어 金山縣監을 지내고 사직하였다. 溪巖과는 가까운 사이로, 서신 왕래가 많았다.

22) 賤疾雖以靜攝爲事 羸劣有加於昔 是知病源已深 藥力又薄 則徒爾杜門面壁 無一分有效也(溪巖集 卷4, 書, 答李仲明 燦)

다. 柳珍²³⁾에게 쓴 글에서는 ‘나의 손발 못쓰는 병이 痼疾이 되어 버려서 虛하고 고달픔이 劇하고, 온갖 症勢가 다 나타나, 술한 괴로움이 있건만 누가 이 사정을 알 수 있겠습니까.’²⁴⁾하였다. ‘손발 못쓰는 병’이 痼疾化한 것을 알 수 있다. 道伯 李茂伯(潤雨)²⁵⁾에게 써 보낸 글은 매우 深刻하다. 10월 20일 이래로 寒熱症으로 生死의 갈림길에서 앓고 있는데, 뜻하지 않은 除職의 召命을 받았다. 從前에 번번히 稱病하고 除職을 물려왔던지라, 이번만은 中途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上京하여 恩命에 감사하고자 하였으나, 下部가 뜻을 따르지 않아 일어날 수 없어, 寢席에 앉아, 喘息으로 숨이 급급한 지경임을 切切히 호소하고, 이와같은 病狀을 憲吏도 와서 보고 갔다고 附言하고 있다.²⁶⁾ 그 자신의 글을 미루어 알 수 있듯이 젊었을 때부터 身弱하여 病席에 누워 빠친 적이 意外로 잦았던 듯하다. 中年 이후에는 手足이 불편했던 듯한데, 급기야는 中風을 앓았던 것 같다. 身弱했던 탓으로 寒氣를 이기지 못해 喘息과 痰으로 밤잠을 설치는 일도 있었다.²⁷⁾

溪巖의 身病에 관하여는 朝廷에서 일찍이 論難을 불러 일으켰던 ‘使子代疏’의 疏文에 상세한 것을 기술하고 있다. 子息이 쓴 形式으로 되어 있으나, 溪巖이 스스로 쓴 글이다. 아래에서 살펴보자.

23) 柳珍(1582-1635) : 字 季華. 號 修巖. 本貫 豐山. 柳成龍의 아들. 1610년 司馬試 合格. 1612년(光海 4) 金直哉의 誣獄 때 誣告를 받아 5個月 獄苦를 치르고, 1616년 遺逸로써 薦舉되어 世子翊衛司洗馬가 되었다. 仁祖反正(1623)後 奉化縣監. 이듬해 刑曹正郎이 되어 오래 묵은 冤獄을 해결하였다. 1627년에는 虛僞報告로 淸道郡守에서 罷職, 1634년 持平이 되었다. 死後 吏曹參判에 追贈되었다. 安東 屏山書院에 祭享됨. 金垞과는 5歲 年下로, 莫逆한 親交를 가졌다.

24) 弟手足不遂之病 轉成沈痼 虛瘁已極 百證俱發 萬般苦況 誰得知之(溪巖集 卷4, 書, 與柳季華珍)

25) 李潤雨(1569-1634) : 字 茂伯. 號 石潭. 本貫 廣州. 星州 出身. 鄭述의 문인. 1591년 進士가 되고, 1606년(宣祖 39) 式年文科 丙科 급제하고, 典籍을 거쳐 光海 즉위초 注書를 지냈다. 1610년(光海 2) 檢閱로 說書를 겸임하였는데, 이어 사관으로서 鄭仁弘의 비위사실을 직필했다가 탄핵을 받아 사직하였다. 그 뒤 藝文館의 待敎·奉敎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다가 輸城道祭訪을 거쳐 1613년 鏡城判官을 역임하였다. 大北의 專橫이 심해지자 사직했다. 仁祖反正 후 吏曹正郎에 이어 修撰·校理·應敎·司諫·司成을 거쳐 吏曹參議에 이르렀다. 吏曹參判에 追贈되었다.

26) 與李茂伯 潤雨(溪巖集 卷4, 書)

27) 賤疾凜涼以來 痰患用事 終夜少眠 蛩音滿耳 耿耿有慨意(溪巖集 卷4, 與李仲明)

(前略)…신의 아버지는 심히 薄弱하게 타고 났습니다. 壯年에 큰 병을 얻어 病床에 의탁한 지 30년의 오랜 기간에 이릅니다. 중간에 조금 나아서 다행히 과거를 통과할 수 있었으나, 병의 뿌리는 항상 남아 있어, 때 없이 발동하곤 하였습니다. 寒暑風濕이 적거나 의당한 수준을 잃으면 百般의 危症이 여러가지 患候로 되는데, 쩡그리고 신음하고, 여위고 꺼칠하여, 人事를 廢絶한 지 이미 10여년이 됩니다.…(중략)…대개 慢性的 疾患은 오랜 세월이 지나는데 元氣는 빠지고, 下部의 艱요한 部位에 疾患이 발하여 極히 危重해지면 애타게 부르고, 괴로워 하여 앓았다, 누웠다 하므로 근심이 됩니다. 또 지난 겨울초부터는 오른 팔이 痲痺되어 낮밤에 쭈시고 아파, 그 運用이 어렵고 괴롭습니다. 뜻밖에 除命이 그릇 臣의 아버지에게 이르러, 淸班을 욕되이 범하게 될까, 스스로 몹이 아님을 알아 하늘같은 聖恩을 나아가 謝退함이 重하므로 될수록 빨리 길에 올랐으나, 바로 몰아치는 바람이 심히 세차고, 連日 이를 대함에 몸에 두루 傷處를 입고 겨우 忠州에 이르니, 惡寒과 身熱이 함께 掩襲하여 四體를 수습할 수 없어, 부득이 木州에 呈狀하고, 붙들고, 끌고 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旬望間에 누이와 두 姉夫를 잃고 심히 哀痛한 끝에 中風을 얻어, 오른 쪽 어깨와 팔뚝이 끝내 痲痺되었는데, 運用할 때는 오직 왼손을 써서 소소한 물건을 잡는데, 왼쪽은 아니 되는 것이 없으나, 오른 손은 다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른 다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걸음을 걸으면 절룩거리는데, 초여름을 기다려 침과 뜸을 놓아, 만분의 하나의 효과라도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후략)²⁸⁾

이상의 내용은 溪巖 自身이 自述한 것으로, 그의 病에 관한 한 信實한 資料라 하겠다. 그렇다면 그의 病은 世人들이 非病視했던 것과는 달리 ‘참 身病’이었다는 것인가?

桐溪 鄭蘊(1569-1641)은 鄭述와 鄭仁弘의 門人이었으나, 스승 鄭仁弘이 光海 卽位後 大北으로 權臣이 되자 絶交했고, 永昌大君을 죽인 江華府使 鄭沆의 斬首를 上疏하여 光海의 노여움을 사, 10년간 大靜 귀양을 갔다가, 1623년 仁祖 反正으로 풀려나 慶尙監司에 除授되었던 인물이다. 溪巖과는 그 義氣에서 상통하는 인물이다. 桐溪가 경상감사로 와 있었을 때 溪巖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隱密한 事件 하나는 溪巖의 ‘病’을 생각하는 데 매우 示唆깊은 바 있다고 하겠다.

28) cf. 溪巖集 卷4, 以子耀亨名陳病情疏

桐溪先生이 方伯으로서 溪巖先生에게 問病을 갔다가 溪巖과 同宿하게 되었다. 한밤중에 사람이 없을 때 桐溪는 溪巖을 부축하여 일으켜, 함께 밖에 나와 徘徊 數步하였다. 桐溪가 溪巖에게 歎하여 말했다. '내가 공을 위해 글한 편을 지을 수 없었으니, 平生에 부끄러움을 남기게 되었소.' 이어 말하기를, '우리 임금께 공이 있음은 武王에게 伯夷가 있음과 같소이다.' 하였다. 대개 桐溪는 溪巖과 마음이 같았던 까닭에 溪巖의 病이 病 아님을 알았던 것이다.²⁹⁾

溪巖은 內心에 分義를 헤아려 이를 실천하되, 一切의 世上 功利를 떠나 逸民³⁰⁾으로 살고자 한 것이다. 오직 뜻을 높은 데 두고, 깨끗하게 행하되, 자기 안에서 스스로 택하고 스스로 지킬 뿐이니, 세상에 기울거나 사람들의 여론에 흔들리지 않았다. 仁祖反正이 있고, 언젠가 儒者들과 어울린 자리에서 溪巖이 出仕치 않음을 따져 물으니, 그는 쓸쓸히 입을 다물고 응하지 않았다. 儒者들의 끈질긴 요구에, 溪巖은 천천히 말했다. '홀어미된 女人이 지아비의 不義를 핑계 삼아 절개를 바꿈은 不可합니다.' 이에 여러 儒者들은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肅然했다. 일찌기 光海 亂政을 피해 山林에 숨었던 선비들이 反正初 새 왕(仁祖)의 부름에 應하지 않은 이가 없었던 시절에 溪巖만 홀로 痼疾을 이유로 사퇴하여 나가지 않았다. 그럼에도 仁祖는 屢次 除命을 내렸고, 溪巖으로서는 때로 매우 난처한 적도 있었다. 그래도 그는 死生禍福을 떠나 조용히 스스로 지킬 義理만을 생각하고 지냈다. 과연 그는 孔夫子의 가르침 '믿음을 굳게 하고, 배움을 좋아하고, 죽기로 옳한 道理를 지킨다(篤信好學 守死善道)'고 한 말을 몸으로 지켰다. 溪巖으로서는 벼슬 살지 않는 이유를 여러 말로 형언할 수 없었던 까닭에 病疾로써 사양했고, 그 결과 병질로써 물러나 있었다. 그의 참뜻을 살피는 사람들의 耳目 때문에도 溪巖은 자리를 깔고 앉아 17- 8년을 문밖 출입을 알았을 뿐더러 徘徊하거나 便을 보는 일에도 늘 사람이 侍從하게 해야 했던 것

29) 鄭桐溪先生 以方伯問先生病 與之同宿 中夜無人 卽扶起先生 徘徊數步 歎曰 吾不能爲公一著 貽愧平生 迺曰 吾王之有公 武王之有伯夷也 蓋桐翁與先生 同一心事 故知先生之病非病也(溪巖集 卷6, 附錄, 行狀 李光庭)

30) 逸民 : 伯夷·叔齊·虞仲·夷逸·朱張·柳下惠·少連(論語, 微子18) 逸民者 節行超逸也(集解)

이다. 이와같은 溪巖의 뜻은 伯夷³¹⁾의 마음과 같으니, 그의 時代는 伯夷의 時代와 같지 않았으나, 스스로 處身함에 있어서는 伯夷보다 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겠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慷慨하여 몸을 죽이기는 쉽다. 從容히 義를 지켜 나아감이 어렵다.(慷慨殺身易 從容就義難)'고 하였거니와 이는 바로 溪巖의 경우를 말했다고 하겠다. 17-8년간 廢疾人이 되어, 주변에서 엿보는 자로 하여금 그의 마음과 자취를 헤아려 볼 수 없게 해야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는가! 肅宗 때에 溪巖에게 都承旨를 特贈하면서 내린 教旨에서 '志操의 깨끗함, 風節의 高潔함, 士林 矜持의 본이 되도다.(志操之確 風節之高 爲士林矜持)'고 하였는데, 正鵠을 질렀다고 하겠다.³²⁾

위에서 考察한 바로 미루어, 溪巖의 疾病은 결코 단순한 僞病이라 할 수는 없다. 근본적으로 남달리 철저한 志操意識으로 하여 벼슬을 살 수 없었던 그는 당초 타고난 身弱의 條件이 謝職의 理由가 되었던 터이나, 그로 인한 不自由한 拘束은 不知中 건강을 해치게 하였다. 워낙 잔병이 많던 그는 漸次 病弱하게 되면서 病狀이 深刻해져, 下部의 不如意에, 끝내는 中風을 앓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그의 意志는 끝내 病魔에 굴복당하거나, 좌절되지 않았다. 그와 같은 自閉의 空間에서 所懷를 吐露한, 적지 않은 詩作을 남겼던 바, 이를 통해 보는 한 그는 결코 挫折하지도 挫折당하지도 않았음을 보겠다. 오히려 우리는 그가 아무리 몸쓸 신병을 앓는 중이었다 하더라도, 그 險難한 한 時代에 '挫折'은커녕 끝까지 스스로의 所信과 理想에 살았던, 그지없이 自由로웠던 한 사람, 그 중 健康하게 살았던 한 사람을 그의 詩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溪巖을 '嶺南第一人'³³⁾, '當世第一人'³⁴⁾으로 일컫고, 그의 節義를 伯夷에 비유한 先人들의 생각도 이에서 멀지 않다. 일찍이 孟子는 '伯夷의 作風을 들으면 頑

31) 武王伐紂 伯夷叔齊 叩馬而諫曰 父死不葬 爰及干戈 可謂孝乎 以臣弑君 可謂仁乎 左右欲兵之 太公曰 此義人也 扶而去之 武王已平殷亂 天下宗周 而伯夷叔齊恥之 義不食周粟 隱於首陽山 采薇而食之…(中略)…遂餓死於首陽山 (史記 卷61, 伯夷傳)

32) cf. 溪巖集 卷6, 行狀 李光庭

33) 正月 辛丑 司諫金垞 上疏乞遶 許之 垞禮安人也 性恬靜有操守 屢召輒辭 終身不踰嶺 世稱嶺南第一人 或云 今上反正後 未嘗仕宦(仁祖實錄 卷 28, 仁祖11年 癸酉 正月)

34) 修巖(柳軫)先生 常以先生爲當世第一人(溪巖集 卷6, 行狀 李光庭)

惡한 자도 清廉해지고, 겁 많은 자도 志操를 세우게 된다'고 하고, '百代前에 奮發한 일을 百代後에 듣는 자, 感動치 않음이 없으니, 聖인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³⁵⁾ 하였다. 이 곧 '聖인은 百대의 스승'이라는 것이다. 溪巖의 行狀에서 海臯는 그를 위의 伯夷에 대비하면서, '溪巖이 비록 道를 쌓고, 美德을 품었으나, 한 세대에서 뜻을 다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남긴 作風이 미치는 바는 족히 百대의 人紀(사람의 도리)를 扶持하여 天地가 뒤집힐 때까지 이르러니, 조선의 衣冠(벼슬하는 선비들)이 온갖 더러움에 물들지 않음이 없었던 때에 선생은 수풀 속 草廬에 孤高히 누워 있었다. 超然함이 舜禹시절의 上인이요, 참으로 當世에 오직 一人이었다.'³⁶⁾고 하였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선비들 가운데는 더러 溪巖과 같이 벼슬을 마다하고, 田里에 退去하여 孤高한 義理를 지켰던 이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 仁祖 17년 7월의 實錄 기사는, 除命이 내릴 때마다 稱病하고 물러가 10년간을 鄉村에 묻혀 사는 선비 세 사람—嶺南의 金垓, 驪州의 李必行³⁷⁾, 湖南의 愼天翊³⁸⁾을 들고 있다.³⁹⁾ 이 중 愼天翊은 孝宗 5년에 副提學을 除授 받은 이후 여러 관직을 거친 끝에 漢城府右尹에 이르러 官職을 물러났으니, 孤節로 一貫한 앞의 두 사람과는 다르다. 李必行은 丙子の 亂 以來 벼슬을 외면

35) 聖人百世之師也…(中略)…故聞伯夷之風者 頑夫廉 懦夫有立志…(中略)…奮乎百世之上 百世之下 聞者莫不興起也 非聖人而能若是乎…(後略) (孟子 14, 盡心章句 下, 聖人百世之師也章 15)

36) 先生雖蘊道含章 不得獻爲於一世 而餘風所及足以扶百代之人紀 至於天地傾覆之際 東華衣冠 無不染汗腥塵 而先生高臥林廬 超然爲虞夏上人 信乎當世一人而已 (溪巖集 卷6, 行狀 李光庭)

37) 李必行爲司諫 必行自丁丑以後 退去驪州 稱病杜門 前後除拜 一不應命…(後略) (仁祖實錄 卷39, 17年 己卯 7月 丙寅)

38) 愼天翊(1592-1661) 字 伯舉. 號 素隱. 木貫 居昌. 1612年(光海 4)에 增廣文科 乙科에 及第. 1615年에 正字, 吏曹參議에 이르러, 光海失政으로 辭職하고 靈巖에 隱居하였다 1623年 仁祖反正後 修撰, 獻納, 校理, 司諫 등에 任命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1654年(孝宗 5) 副提學을 거쳐 大司諫, 吏曹參判 등을 지내고 漢城府右尹에 이르러 辭職하였다. 이 點 溪巖과는 다르다. 文章, 詩賦에 能하여 宋時烈的 讚嘆을 받았다. 靈巖의 永保祠에 祭享되었다.

39) ○ 以金榮祖爲大司諫…(中略)…李必行爲司諫 必行自丁丑以後 退去驪州 稱病杜門 前後除拜 一不應命 是時以臺侍退處田里者 湖南有愼天翊 嶺南有金垓 此兩人 自絕意仕宦 國有變亂時 或一來而旋即退去 如是者十年 至是與必行爲三人焉(仁祖實錄 卷19, 12年 己卯 7月 丙寅)

하고 일생을 살았다. 죽음에 임하여 자식에게 丙子後에 除拜한 官名을 쓰지 않도록 경계하였다고 하니, 그 역시 평생 苦節을 지켰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그에 앞서 肅宗 15년 7월 都承旨로 褒贈된 金垞의 예를 좇아 같은 해 9월에 褒贈의 恩典을 입었다.⁴⁰⁾

3) 學問과 士意識

溪巖은 일찍부터 世相과는 어긋나고, 또 깊이 자신의 才德을 감췄던 때문에 그를 아는 이는 단지 그의 淸風俊節이 당시에 높이 비치는 것만 보고, 光明正大하여 變塞치 않는 까닭을 아지 못하였다. 그의 學問은 오로지 內面에서 用心하였고, 病疾에 걸린 뒤로는 世上事와 아주 담을 쌓고, 一意涵養하였다. 肅然히 一室 左右에 圖書를 두고⁴¹⁾, 눈 감고 端坐하고 있다가 몸을 돌이켜, 體認하였다. 思索하여 得意하는 대로 欣然히 顏面에 나타났다. 朱子書를 공부하기 더욱 敦篤히 하여 沈潛 翫釋하였다. 疑問이 있으면 반드시 쪼개고 들어가 根源의 작은 끝까지 究明하고, 이를 實踐하였다. 그는 晩年에 이르러 배움을 더욱 넓히고, 志操를 더욱 굳혔다. 깨달음은 날로 참되고, 德은 날로 높았다. 일찍이 詩에 쓰기를, ‘오래 앓던 병이 물러나며 安閑하니/비록 몸은 늙었어도 새로 공부 힘쓴다./밝은 창가에 꿈작않고 앉아/내 마음, 簡冊 안에서 놀도다.(漸安除舊疾 雖老勉新功 凝坐明窗畔 游心簡冊中)’ 그나름으로 찾은 自樂의 모습을 알 만하다. 그의 居處에 놓인 几案은 밝고 깨끗했고, 書冊은 반듯이 整齊되어 있었다. 선반에 받들어 둔 經典은 마치 嚴師를 모셔 둔 것 같았다. 用을 보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대야의 물로 손을 씻고 나서야 책을 대하였다. 책 하나를 다 마치면 거두어 간직하고, 다른 책을 읽고 다시 그렇게 하였다. 案上에는 다만 책 한 권만 놓아 두었고, 客이 오면 반드시 그 卷面을 反轉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무슨 책을 읽는지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그가 平日에 스스로 자취를 감춤이 대개 이와 같았

40) ○ 受灸入侍睦來善言 故司諫李必行 自丙子之亂 遂守志不仕 臨死戒其子 毋書丙子後所拜官名 苦節如此 宜視金垞例 褒贈之 從之(肅宗實錄 卷21, 15年 己巳 9月 癸卯)

41) 裴幼章은 「懷溪巖金先生」(溪巖集 卷6, 42裏張)에서 ‘公所處極蕭灑 圖書滿壁 日對黃卷’이라고 썼다.

다. 文章은 淸麗典雅하여 절로 一家를 이루었다. 그의 詩는 매우 深邃하여 '悠然히 東籬에서 南山을 바라본다'⁴²⁾고 한 陶淵明의 詩趣가 있었다. 1624년 李适의 亂 以後 그는 친히 붓을 잡아 글을 쓰지 않았다. 知舊와의 問答에서도 一切 붓으로 쓰는 일을 않았다. 不得已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람을 시켰다. 어떤 일에 부쳐 所懷를 읊을 경우도 일찍이 글로 草한 일이 없고, 口占하였을 뿐이다. 事情이 이러하니, 그의 著述로 세상에 전하는 것은 드물다. 혹 門人과 子弟가 溪巖의 버린 것을 收拾하여 간직했던 것 若干卷이 있을 뿐이다.⁴³⁾

그는 어렸을 때부터 부친 雪月公이 陶山에서 익히 들었던 것으로 敎道함을 받아 孝德이 각별하였다. 父母가 바라는 바는 반드시 힘을 다하여 이뤄 드렸고, 옳지 않은 것은 빨리 고쳤고, 또 이를 결코 되풀이하지 않았다. 선비로서 뜻은 높게, 행실은 깨끗하게 지냈다. 자신이 택하고, 자신이 지켜, 世俗에 기울지 않았다. 혹 사람들이 鄙俗한 말로 서로 자랑하여 다투는 것을 보면, 행여 그와같은 自慢이 자기를 더럽힐까 두려워 하듯 결연히 일어나 자리를 떠났다. 사람의 善을 보면 곧 傾倒하여 속사정을 열어 보인다. 惡을 보면 곧 面斥하여 관계를 끊고, 容納하지 않았다. 學問을 篤實하게 專攻하고, 先聖의 어진 글을 諷誦하여 그 義를 通하고, 반드시 吾性에 達通케 하였다.⁴⁴⁾

仁穆大妃 廢黜로 政情이 더욱 昏亂해지니, 溪巖은 世上에 뜻을 끊고, 집에 屏居하면서 粹然히 혼자 자기를 다스리며, 學問에 干與치 않은 날이 없었다. 이 때에 여러 儒生들과 함께 學舍에 가서 經旨를 論하였고, 혹 山澤의 勝地를 求하여 노닐기도 하였다. 술을 따르고, 거문고를 타며, 나의 音樂을 내가 즐기되, 世上事로써 아니하였다.⁴⁵⁾ 이와같은 溪巖의 學問을 두고, 혹 이르기를, 陶山의 古風이 다시 있게 되었다고 했고, 혹은 魯連⁴⁶⁾이 東海를 건너왔다고 했다. 靖節

42) 陶淵明이 '飲酒'로 題한 20首의 詩中 第4首가운데 있는 詩句—(前略)…問君何能爾 心遠地自偏 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後略)

43) cf. 溪巖集 卷6, 行狀 李光庭, 16f. 張

44) cf. 溪巖集 卷6, 墓碣銘 並序 權愈, p. 20f. 張

45) cf. *Ibid.*, p.21f. 張

46) 魯連 : 魯仲連으로, 戰國時代 齊나라 義士다. 사람됨이 高蹈하여 不仕하고, 남을 위해 기뻐 排難解紛하였다. 趙나라에 갔더니, 秦나라가 趙나라를 包圍하여 危急하

(陶潛)의 北窗⁴⁷⁾과 함께 나란히 夷齊를 일컫기도 했다. 溪巖이 스스로 자취를 泯滅하기를 바랐을지라도 그렇게 될 수 없었던 것은 百世의 뒷날에 가히 가르침이 없을 수 없었던 天道의 所致 아닌가 한다.

溪巖이 일찍이 朝鮮의 科擧 風俗에서 '新來之戲'의 弊端⁴⁸⁾을 痼疾病으로 여겼었는데, 金應祖⁴⁹⁾가 擢第하고 마침 溪巖의 고장을 지나게 되었다. 溪巖은 그를 한 번 불러보고 물러가게 함으로써 新來者를 그지없이 괴롭히고 侵虐하던 當代의 惡習을 거슬러, 話題가 되었다. 어찌 그뿐이라! 그는 家庭을 다스리는 데도 儼然한 家法을 가지고 實行하였는데, 지나치리만치 嚴正했다. 일찍이 柳軫이 冬月에 來訪하여, 머물러 환담하는 가운데 어느덧 夜分이 되었다. 처음부터 그 자리에는 侍側하는 이가 없었으므로 柳軫은 수상쩍게 여겼었는데, 就寢할 때가 되어, 溪巖이 '요를 가져오너라' 하고 부르니, 아들 넷이 일제히 '네!' 하고 들어왔

었다. 이에 魏나라는 客將軍 新垣衍을 시켜 秦나라 昭王을 帝로 받들기를 請하게 하였다. 仲連은 義로써 이를 허락할 수 없어, 衍을 보고 말하기를, 秦이 稱帝할 때의 害를 거듭 설득하니 衍이 감히 다시 진의 칭제를 말하지 않았다. 秦軍은 趙나라에서 물러갔다. 후에 田單이 齊王께 말하여 그에게 벼슬을 주게 하려고 하자 仲連은 피하여 海上에 숨어서 마쳤다. (史記 卷 83)

47) 圓素如明月 輕淸産快風 青蠅不敢近 睡足北窗翁(溪巖集 卷 3, 題圓扇)

48) '傳 新及第者를 四館目하여 新來로 하여 侵虐汚辱함이 無所不至라. 溝澗의 穢泥로 그 面目에 발라, 이름하여 唐卿粉이라 이른다. 冠服을 毀裂하고 污水 가운데 밀어 넣어 鬼形을 만드니 차마 볼 수가 없다. 몸을 상하고 병을 얻는 경우가 번번히 있다. 뿐만 아니라 그 體貌에 있어서 虧損은 실로 많다. 이와 같은 弊俗事는 禮文에 없다. 또 中國에도 없다. 그런데 이 惡習을 常例라 하여 安閑히 고칠 줄을 모른다. 無識하기 이처럼 甚할 수가 없다. 自今以後 新舊間糾檢事 외, 汚穢侵虐戲弄事는 一切 痛革한다. 만약에 혹시라도 舊習을 밝는 者는 摘發治罪한다. 新來侵虐事는 余가 前日에 屢次 名公賢士에게 말했던 터이다.'(柳希春, 眉巖日記草, 第3冊, 己巳 9月 大 13日: 筆者譯) 위와 같은 新來侵虐의 弊害를 논한 글은 위의 眉巖 외에도 黃愼(秋浦集 卷1), 李秉璿(淵齋集 卷16, 書 與從弟士宗秉琮), 嚴慶遂(孚齋日記, 丙戌 肅宗 32年 3月11日·8月 29日), 李珥(石潭日記 卷上, 隆慶 3年己巳), 尹昕(溪陰漫筆 卷3) 등에서도 볼 수 있다

49) 金應祖(1587-1667) : 字 孝徵. 號 鶴沙·啞軒. 本貫 豊山. 榮川 출신. 17세에 柳成龍을 師事하여, 1613년(光海 5)에 生員이 되었으나, 大科 應試를 포기하고, 張顯光 門下에서 學問을 鍊磨하였다. 1623년 仁祖가 卽位하자 謁聖文科에 應試하여 丙科 及第하였다. 병조정랑, 흥덕현감, 선산부사를 歷任하고 1634년 사직하고 낙향하였다. 1659년 孝宗이 즉자 辭職하였다. 1662년(顯宗3)에 大司諫에 任命되었으나 사퇴, 그 후 漢城府右尹에 이르렀다. 文章에 能하였다. 安東의 勿溪書院과 永川의 義山書院에 祭享되었다.

다. 그 때까지 네 아들은 부친을 방 밖에서 모시고 있었는데, 始終 숨을 죽이고 조심하여, 인기척이 없었던 때문에 侍側하는 이가 없었던 것으로 지레짐작했던 것이다. 때문에 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두 사람의 歡談中에 들어올 수 없었다. 이를 본 柳軫은 깊이 歎服했다고 한다. 또 그가 平素에 거처하는 房은 整齊 嚴肅하였고, 비록 그윽히 혼자 쓰는 방이라 할찌라도 몸가짐에서 惰慢의 氣가 있을 수 없었고, 姦邪한 音聲과 淫蕩한 色相을 耳目에 接하지 않으며, 惡衣惡食을 부끄러워 하지 않으며, 前人의 法矩를 밟아 行하여, 流行하는 世俗에서 멀으므로 世俗에 젖은 이들은 혹 그의 度量이 좁다 하고, 멀다 하고, 그의 枯淡과 拘束을 들어 病들었다 하나, 이들은 溪巖의 明哲과 得定을 아지 못한다. 그는 나의 樂을 즐기고, 밖에서 그리는 것이 없다. 술을 좋아 하여도 亂하지 않으며, 혹 술 자리에서 醉하면 곧 容色을 가다듬고 바로 앉아,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 여러 사람을 應接함에는 반드시 左右를 살펴보아 사람들이 忌諱하는 것을 결코 건드리거나 범하지 않았다. 好惡取捨를 私意로 가리지 않았으며, 義롭지 않은 것은 芥子씨 한 알이라도 물리쳐, 받지 않았다. 사람의 喪故를 들으면 그 情分에 따라 儉素하게 禮를 행한다. 貴賤大小를 막론하고 誠心으로 대하고, 莊重端嚴하여 감히 犯할 수 없다. 옛 知友와 품을 열고 이야기할 때는 따뜻하고 순수한 모습이 봄바람과 같이 溫和하다. 사람의 착함을 들으면 기뻐하고, 그 惡함을 들으면 자기를 더럽힐 것이 두려운 듯 곧 토해 버렸다. 어진 이를 恭敬하고, 不肖한 者를 두려워 하였다. 사람들은 溪巖에게서 犯할 수 없는 氣色을 보고, 또 빼앗을 수 없는 뜻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⁵⁰⁾ 溪巖의 德과 學은 이와같이 高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때를 만나지 못하여 王政을 도와 백성을 澤潤케 할 기회를 끝내 갖지 못했다. 그러나, 그 風聲은 죽히 時代의 貪慾에 부딪혀 세상을 맑게 함에 공이 있었다. 그의 學行은 참으로 크다 하겠다. 그 나머지 言行도 그 심은 바에 말미암았을 것임에 클 것임을 推想할 수 있다. 어찌 반드시 條目으로 들어서 말한 뒤에야 알겠는가. 그의 詩文은 그의 質性和 學問에서 나왔던 까닭

50) cf. 溪巖集 卷6, 行狀 李光庭, p. 15f.張

으로 俊爽雅健하여 世上과 妥協하여 뒤섞이지 않았고, 따라서 구차히 드러내지 않았다. 까닭에 著述은 簡潔했다. 想이 發하여 文이 되었더라도 原稿를 간직하지 않았고, 간간 事物에 접하여 속마음을 읊은 것, 입으로 읊은, 한 두 편에 그쳤을 뿐인데, 글로 草한 것이 아니다. 門을 닫고 出入을 얹게 되면서 붓 글씨 쓰기를 끊음에, 耳目으로 서로 전한 것은 적었다. 門人, 子弟가 記錄한 若干卷이 집에 所藏되고 있다. 溪巖의 天性이 글씨 쓰기를 좋아 했으나, 남을 위해 글자 쓰는 일은 않았다. 尺牘도 사람에게 口占하고, 스스로 쓰지 않았던 때문에, 끝내 간직한 것이 없고, 버린 것이 세상에 전한다.⁵¹⁾

4) 癸亥反正과 節義

溪巖은 光海君 4년(壬子)에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權知 承文院 正字가 된 이래 광해군 7년(乙卯) 겨울에 承政院 注書로 薦授되었던 터이나, 다음해 봄에 관직을 사임하고 禮安으로 돌아갔다. 그는 처음 登朝하여 얼마 뒤 光海昏政의 실상을 깨닫고, 도저히 그대로 朝廷에 몸담고 있을 수가 없었다. 光海君은 1608년에 즉위하여 처음에는 黨爭의 弊를 억제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도리어 黨爭에 휩쓸렸다. 大北派의 계략에 빠져 臨海君·永昌大君·金悌男(인목대비의 부친) 등을 逆謀로 몰아 죽이고, 母后 仁穆大妃를 西宮에 幽閉하는 등 갖은 패륜행위를 저질렀다. 溪巖이 正字가 되던 광해군 4년 9월 그의 師傅이던 鄭仁弘이 大北으로 右議政이 되었다.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溪巖은 鄭이 비록 스승임에도 정치적 행각에 실망하여 絶緣하였다. 光海君 5년 6월에 金悌男을 賜死하고, 8월에는 永昌大君을 庶人으로 降等하여 江華島에 圍籬安置하였고, 10월에는 廢母論이 일어났다. 다음해 광해군 6년 2월에 永昌大君을 江華府使 鄭沆이 죽였다. 이에 鄭沆을 斬首하라고 光海君에게 상소한 鄭蘊을 7월에 濟州 流配하였다. 光海君 7년에는 綾昌君 佺(仁祖의 동생)을 推戴 嫌疑(誣告)로 喬洞에 安置後 죽였다.

51) cf. 溪巖集 卷6, 墓碣銘并序, p. 24 張

이상은 溪巖이 관직을 사임하고 내려올 무렵까지 光海昏政이 저지른 큰 事件들로, 아마도 溪巖으로서는 마음에 결코 受容할 수 없었던 背倫과 悖逆의 犯罪가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光海君 10년에 발생한 仁穆大妃의 西宮幽閉를 契機로 그 동안 大北派에 일방적으로 눌러 지내던 西人 一派는 李貴·金自點·金滲·李适 등이 중심이 되어 光海君과 執權黨인 大北派를 몰아내고, 綾陽君 侗을 王으로 擁立하고자 武力政變을 企圖하고, 1623년(癸亥, 광해군 15년) 3월 12일 舉事, 王大妃의 允許를 얻어 綾陽君을 왕위에 迎立하니, 이 곧 仁祖다. 光海君을 庶人으로 내려 江華에 귀양 보내고, 李爾瞻·鄭仁弘 등 大北派의 權臣들은 處刑되었다. 그 동안 벼슬길을 외면하고 은둔했던 山林之士들로서 계해년의 仁祖反正初 새 王朝의 부름에 응치 않은 이가 없이 대부분 떨치고 나와 現實 政治에 參與했던 터이나, 유독 溪巖만은 痼疾을 핑계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 溪巖이 仁祖의 부름에 應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病疾 때문만은 아니었으니, 이미 앞에서 引用한 溪巖의 말—(嫠婦不可以 夫不義而改其守也)—에서 보듯 光海君이 비록 悖倫의 昏君이기는 하였으나, 不事二夫 곧 不事二君의 節義觀念에서 그의 不仕之義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純祖 13년 9월 戊寅에 領議政 金載瓚이 아뢰기를, '嶺南儒生 金星鍊 등은 疏에서 贈都承旨 金垞이 道學節義의 實로 말미암아 易名의 典을 더하여 주기를 청하온데, 金垞은 先哲에게 修業하여 昏期에 몸을 깨끗이 지켰고, 故君을 위해 節義를 온전히 하였사오니...(중략)...垞은 아직 表顯되지 않아, 많은 선비들의 抑鬱이 있사오니, 贈都承旨 金垞에게 특별히 正卿을 贈하시기 請하나이다. 말미암아 그 節義에 恩惠 나리시기 청함을 許하시옵소서.' 하였다. 王은 이에 따랐다.⁵²⁾

그리하여 다음해 純祖 14년 9월 11일에 '文貞'이라는 諡號⁵³⁾가 내려졌다. 위의

52) 戊寅 次對領議政金載瓚曰 嶺南儒生金星鍊等疏陳贈都承旨金垞 道學節義之實 仍請加贈易名之典矣 金垞受業於先正 潔身於昏期 至於爲故君全節...(中略)...垞之尙未表顯 宜有多士之抑鬱 請贈都承旨金垞特贈正卿 仍許節惠之請 從之(純祖實錄 卷 17, 13年 癸酉 9月)

53) 1814년(純祖 14) 禮曹에서 아래와 같이 贈諡(文貞公)하는 教旨를 내렸다. (現在

疏文에서 '金垚이 故君을 위해 節義를 온전히 하였다'고 한 '故君'은 光海君인 바, 金垚이 仁祖代에 벼슬을 마다한 것을 故君-光海君에 대한 節義로 이해하는 視角을 본다. 어쩌면 이는 伯夷·叔齊가 周粟을 먹지 않고 首陽山에 숨어 고사리를 캐 먹다 餓死한 節義와 隱然中 한가지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아래와 같은 解釋도 있다.

肅宗 15년 7월 乙卯에 御書講의 자리에서 특진관 陸昌明이 말하기를, 故司諫 金垚은 嶺南의 賢士로 褒贈을 더함이 宜當하다고 하니, 李玄逸이 또한 이를 極口 贊同하였다. 上께서 該曹에게 명하여 稟處하게 하여, 마침내 垚에게 贈都承旨하였다. 垚은 癸亥反正을 非라 여겨서 仁祖 朝廷에 서고자 아니하였으며, 終身 自閉하였다. 玄逸 등은 바로 그 論議를 扶植하던 고로 힘써 이를 위해 이와같이 崇尚하고 獎勵하였다.⁵⁴⁾

金垚은 물론 光海君의 亂政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터이나, 그렇다고 仁祖反正과 같은 武力政變을 결코 옳다고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일찍이 周의 武王이 武力으로 殷 紂王을 치러 나가려 할 때 말고삐를 잡고 諫하여 말리던 伯夷와 叔齊, 두 사람의 義와, 仁祖의 反正을 끝내 正當視할 수 없었던 金垚의 義는 비록 서로 나라와 時代의 形便과 事情이 달랐다 해도 義의 本質에 있어서는 何等 다를 것이 없다고 하겠다. 西人이 主導한 反正은 그 不義의 局面 때문에 深刻한 後遺를 가져왔던 것이니, 仁祖 2년에 일어난 李适의 反亂이 그것이다. 하필 癸亥反正의 功臣이었던 李适이 論功行賞에 不滿을 품고, 지난날에 스스로 推戴하고, 위하여 싸웠던 仁祖를 향해, 오늘은 反旗를 들었으니, 그들의 反正에 무슨 大義名分이 있다고 하겠는가?

金永倬씨 所藏) 教旨 贈資憲大夫 吏曹判書 兼 知經筵 義禁府事 弘文館大提學 藝文館大提學 知春秋館 成均館事 世子左賓客 五衛都摠府都摠管 行通訓大夫 司諫院司諫 兼 世子侍講院 輔德 金垚 贈諡文貞公者 道德博聞日文 清白守節 日貞 崇禎紀元後四甲戌 九月十一日

54) 御書講 特進官 陸昌明…(中略)…又言 故司諫金垚 嶺南賢士 宜加褒贈 玄逸亦極口贊之 上命該曹稟處 遂贈都承旨 垚以癸亥反正爲非 不欲立於朝 終身自廢 玄逸等方扶植其論 故力爲之崇獎如此(肅宗實錄 卷 21, 15年 己巳 7月 乙卯)

5) 丙子胡亂과 金垞의 慷慨

1627년(인조 5년) 後金(뒤의 淸國)의 侵入으로 일어난 丁卯胡亂은 朝鮮이 저들과 兄弟之國의 盟約을 맺게 하고 물러갔다. 그 후 1632년(인조 10년)에는 兄弟關係를 고쳐 君臣의 關係를 맺고, 歲幣를 增加할 것을 요구하였다. 1636년(인조 14년) 4월 後金의 太宗은 皇帝를 稱하고, 國號를 淸이라 고치고, 斥和宣戰의 氣運으로 기울어진 朝鮮을 侵略하고자 동년 12월 2일 太宗은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瀋陽을 떠나 鴨綠江을 건너왔다. 청군은 떠난 지 10일만에 서울 近郊에 육박하였다. 조선의 朝廷은 두 王子(鳳林·麟坪)를 비롯한 妃嬪 宗室과 男女貴族들을 우선 江華로 피난 보내고, 仁祖는 世子·百官을 친히 거느리고 뒤를 따르려 하였으나, 이 때는 이미 길이 막혀 부득이 昭顯世子和 廷臣을 동반하고 南漢山城에 피하였다. 南漢山城에서 仁祖는 急使를 明 나라에 보내어 援軍을 청하고, 또 檄文을 八道에 발하였다. 그러나, 16일에는 이미 淸軍이 南漢山城을 포위하였고, 이듬해 正月에는 淸太宗이 도착하여 北漢江岸에 布陣하고 全軍을 지휘하였다. 山城은 완전히 고립되었고, 성내에는 軍勢 1만 2천여, 食糧 1만 4천여 섬(石)으로, 겨우 50여일간의 補給이 가능할 정도였다. 包圍된 지 45일만에 食糧缺乏과 추위로 城內의 將兵은 氣運이 盡하고, 기다리는 援軍은 도중에서 모두 淸軍에게 擊破 당하였다. 城中에서는 和戰 兩論이 對決을 거듭한 끝에 主和派의 主張이 채택되어, 항복하기로 落着되었다. 崔鳴吉등이 淸軍과 和平交涉을 하였는데, 淸太宗의 요구는 朝鮮王이 친히 城門 밖에 나와 降服하고, 兩國의 關係를 惡化시킨 主謀者(斥和主戰論者) 2·3名을 引導하면 和議에 응하겠다는 것이었다. 王은 처음 이를 받아들이기에는 躊躇하였으나, 江華 陷落의 소식에 접하자 부득이 正月 30일 성문을 열고, 王世子和 함께 三田渡(松坡)에 設置한 受降壇에 나아가, 淸太宗에게 降禮를 드렸다. 이 결과 조선과 청, 두 나라 사이에 和約이 成立되었다. 이는 우리 近世史上 처음 보는 恥辱이었다. 55)

위와 같은 民族 受難의 時代를 살았던 溪巖은 屈辱的인 降服의 悲報에 접하자

55) cf. 李弘植, 國史大事典 上, 知文閣, 1962, p. 588f.

悲憤慷慨함을 금지 못했다. 行狀 記述者는 아래와 같이 썼다.

그 明年(1637년) 봄(正月 30일) 主上께서 城을 내려가 降服하셨다고 듣고, 溪巖은 痛哭하고 悲憤함이 言色에 나타났다. 吟詠하여 발하였다. '우리 나라는 본디 禮義의 나라로 불려, 大明나라 큰 恩惠 받았고, 여러 世代 내려오며 忠誠으로 섬기더니, 一朝에 힘에 굴하여, 개·돼지 울타리 되었구나. 社稷에 羞恥가 쌓이니, 한 나라의 선비됨을 부끄러워 하노니, 皇朝 섬기기 끝내 다 할 수 없음이여.'⁵⁶⁾

명년 봄에 主上께서 出城하심에 溪巖은 西向하여 痛哭하고, 國家가 夷狄에게 더럽혀짐을 哀痛하고, 皇朝의 恩惠를 갚지 못함을 悲憤해 마지 않았다.⁵⁷⁾

그 明年 봄, 朝鮮은 南漢을 지키지 못했다. 溪巖이 이를 듣고 痛哭하였다. 禮義의 나라가 오랑캐에게 屈하고, 大明 섬기기를 다하지 못함을 아파하였다. 悲憤의 말은 詩에서 많이 發하였다고 이른다.⁵⁸⁾

侵略해 온 淸을 夷狄으로 敵對視하고, 明에 대하여는 '大明'으로 일컬어 그 恩惠를 갚지 못하게 됨을 哀痛해 하고, 悲憤하고 있다. 華夷의 分別이 뚜렷하다. 溪巖은 壬辰倭亂 때 '再造一邦'의 恩惠를 입은 明에 대하여 '萬世難忘의 罔極恩'을 입었다고 하고, 그 義理難磨함을 말했다.⁵⁹⁾ 그는 傳統的인 慕華의 事大意識을 가진 朝鮮 선비였다고 하겠다. 弱肉強食의 侵略을 敢行한 淸에 대하여는 개와 돼지에 譬喩할 정도로 卑下하여 無視하면서, 그런 따위 夷狄의 무리에게 힘으로 屈服 당하게 된 朝鮮의 現實을 切痛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56) 其明年春 聞上下城 先生慟哭悲憤 形於言色 發於吟詠 以我邦素號禮義國 受大明大恩 累世忠誠事之 一朝力屈 爲犬豕所藩 畜羞社稷 恥一國之士而不能終始事皇朝也(溪巖集 卷6, 行狀 權愈, p.4 張)

57) 明年春 上出城 先生西鄉痛哭 慟國家淪汙夷狄 而負皇朝恩 悲憤不已(溪巖集 卷6, 行狀 李光庭, p.12)

58) 其明年春 南漢不守 先生聞之痛哭 痛禮義之國屈於虜 而事大明不竟也 悲憤之辭多發於 詩云(溪巖集 卷6, 墓碣銘并序 權愈, p. 22)

59) 二百餘年拱帝闕 先皇拯恤被元元 一邦再造知誰力 萬世難忘罔極恩…(後略)(溪巖集 卷3, 有歎) 皇恩千載昊天臨…(中略)…義理難磨只在心 聞道神兵頻勝捷 威靈直掃鴨江潁(Ibid., 燕山)

III. 溪巖의 詩世界

溪巖은 일찍부터 詩를 嗜好삼았던 듯하다. 일찌기 쓰기를, '내가 詩冊을 보고 있었다니, 大人께서 책망하시고, 心經⁶⁰⁾을 읽게 하셨다.'⁶¹⁾고 한 것으로 보아, 어렸을 때부터 詩冊을 가까이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벼슬을 내놓고, 隱居하는 처지가 되면서 詩作은 溪巖이 自己를 表白하고, 省察하고, 內實化하는 日常事가 되었다.

杏花兩三枝 小園斜日時 潺湲流水響 淡蕩東風吹 病起試欲步 詩成還自怡 悠悠無與語 閒徑蒼苔滋(卷2, 卽事)⁶²⁾ (살구 꽃이 두 세가지 피고/작은 동산에 해 기우는 때라./졸졸 흐르는 물소리 울려 퍼지고/맑고 화창한 봄바람 불도다./病床에서 일어나 걸음 걸어 보더니./ 詩 짓고 도로 스스로 즐거워하도다./조용히 함께 이야기할 이는 없어도/한가한 오솔길엔 푸른 이끼 무성하도다.)

살구 꽃이 두 세가지 피어 있는 작은 동산에 해 질 녘, 졸졸 흐르는 물소리, 일렁이며 동풍이 불거니, 病 딛고 일어나 걸어보는 작자는 詩를 짓고 그제서야 혼자 기뻐한다. 이야기 나눌 이는 없어도 유유하다. 한적한 오솔길엔 푸른 이끼 만 무성하다. 溪巖에게 詩는 속내 다 털어 놓아도 탈 없는 信實한 벗이었다.

다음은 不惑의 溪巖이 가을비 내리는 鄉村에서 自述한 詩篇 4수중의 두 수다.

山色微烟裏 秋光細雨中 樹深清瀨遠 村僻小蹊通 車馬喧難到 樵漁興未窮 閒看陶杜集 千載素心同 (卷2, 秋雨書興 1)209d-210a (산 빛은 안개 속에 희미하고/가을 풍광 가랑비 속에 어른거리네./깊은 樹林을 맑은 여울이 들렀고./궁벽한 마을은 오솔길로 통하네./ 수레·말의 시끄러움 이에 이르기 어렵거니와./나무하고 고기 낚는 흥 그지 없도다./한가로이 陶杜(陶淵明·杜子美)의 시집을 보니/천년토록 꾸밈없는 마음은 한가지러라.)

60) 心經 : 書名. 1卷. 宋 眞德秀 撰. 聖賢의 마음을 논한 格言을 모아, 諸儒의 議論으로 注를 붙였는데, 大旨는 正心을 근본으로 다루고, 끝에 四言의 贊一首를 붙였다. cf. 四庫提要, 子, 儒家類

61) 一日 余覽詩冊 大人責之 使讀心經 (溪巖集卷 5, 庭訓箴錄)

62) 이하 『溪巖集』所載 詩의 出典 表示는 「卷○, 詩題」로 略記함.

때는 光海君 8년, 溪巖이 禮安에 病居하고 있을 무렵이다. 한가한 가운데 그는 陶淵明과 杜甫의 詩를 看讀하고 있다. 時空 너머 彼此의 詩心이 다르지 않음을 새삼 느낀다. 다음에 소개하는 끝 수는 쓸쓸한 病居의 霧圍氣에서 自我를 고평히 省察하는 詩人의 內面이 드러나 있다.

寥寥人影絕 瑣瑣鳥聲稠 歲月空催老 江湖未解憂 波奔迷外物 塊處惕前修 宇宙爲男子 虛生最可羞 (Ibid., 4)210ab (쓸쓸히 사람 그림자 끊이고/재잘거리는 새 소리 마냥 울리네./세월은 부질없이 늙음을 재촉하고./江湖엔 아직 근심 풀리지 않네./世波에 분주하여 물욕에 미혹되더니/따로 홀로 있게 된 이 몸, 옛 君子 두려움도다./宇宙間에 남자 되어/헛되이 살았음을 가장 부끄러워 하리로다.)

늙음을 최촉하는 세월의 무정, (인간이 사는) 江湖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근심이 있는데..., 하여 시인은 宇宙에 남자로 태어나, 헛되이 살았음을 가장 부끄러워 하고 있다. 이는 溪巖의 솔직한 自述이자 내면의 자기와의 對話이기도 하다. 일찌기 그는 자신의 글(시)을 문자로 써 남기는 것을 주저하였다. 莫逆한 知友들과의 酬唱에서도 흔히 口占하기 일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詩를 읊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것 같다. 의외로 많은 시편이 전한다. 그나름의 局外者的 自閉의 時空은 다시없는 自己對話의 場이 되었을 법도 하다. 그의 詩에는 그같은 분위기에서 오는 인간의 참 體臭가 스며 있다.

이제 本稿는 溪巖文集 所載의, 그의 詩에서 필자가 임의로 설정한 13개 主題別로 詩篇들을 골라 소개함으로써 한 時代의 逸民으로 살아 온 溪巖의 속내를 속속들이 드러내 보인 그의 詩世界를 共感, 共有할 端初를 열어 갈까 한다.

1) 自述의 세계

九日寥寥獨在家 提壺何處泛黃花 西風蕭瑟霜天碧 一抹秋山返照斜 (卷3, 插菊佳節 無聊盡日 乃吟一絕) 238d⁶³) (아흐레 쓸쓸히 홀로 집에 있다가/단지 들고

63) 아라비아數字는 叢刊本上의 張數, 英文字는 그 張의 上下 4面(a·b·c·d)에서 該

나서니 황화 뜬 곳 어디메뇨/서풍은 소슬하고 서슬 내린 하늘은 푸른데/가을산엔 한가닥 返照 비겼네.)

城南蓬蒿絕來車 中有閒翁臥弊廬 烏帽暫時還拂袖 綠籤終日只耽書 人生自是知音罕 親意相孚識面初 遠別不堪千里阻 須憑尺素漢江魚 (卷2, 自京南還贈李君實) 223d (城南의 허름한 草家에 수레 자취 끊치고/그 안의 한가한 늙은이 오두막에 누웠더라/烏帽 쓴 隱士 되어 잠시 소매 떨치고 돌아와/온 종일 책 읽기에 빠졌구나/人生에 본디 知音이 드물더니/그대와는 초면 이래 줄곧 친숙하였구나./멀리 나누이니 서로 막힌 천리길 차마 어이 하리./아마도 漢江魚에 글 써서 부칠까?)

澄江如鏡淨塵襟 听暮軒窗坐對吟 雨後巖姿糝嫩綠 水邊雲物散輕陰 花飛可惜春將盡 林僻還欣客不尋 向夜月明洲渚靜 一聲清絕聽沙禽 (卷3, 蘆川遣興) 227b (거울같은 맑은 강에 옷깃 티끌 정케 하고/날 저무는 창가에 마주 앉아 시 읊는다./비 그친 바위의 푸른 빛 단장 고옴고/물가 雲氣는 가벼이 흩어 그늘지도다./꽃 날리니 봄 바로 다한 듯 애석하고./숲이 궁벽하여 나그네 찾지 않으니 도리어 반갑다./깊어 가는 밤, 달 밝은 섬 물가 고요한데/더 없이 맑은 한 소리, 모래밭 물새 울음, 듣도다.)

江山本自無夷夏 梅鶴何曾有古今 始識西湖林處士⁶⁴ 一生詩興最深清 (卷3, 遊孤山亭十絕 5) 238b (江山에 본디 夷夏가 없거니./梅鶴에 어찌 예와 지금 있으랴!/西湖의 林處士를 비로소 알았거니/一生的 詩興이 가장 맑고 깊더라.)

隆寒微解雨初霽 冬夜月明清景新 諸子相陪聯榻好 病夫閒坐短檠親 百年天爵惟知貴 舉世人情最厭貧 泉石生涯塵慮少 箇中眞境與誰鄰 (卷3, 仲冬初七夜) 233a (매서운 추위 얼핏 풀리고 비 개이니/겨울밤 달 밝은, 맑은 風景 새롭구나./여러 자식이 서로 모시고 나란히 자리하니 좋거니와/病夫는 한가로이 앉아 등불 가까이 하도다./百年의 天爵을 오직 貴히 되는 것으로 알고/온 세상 人情이 가난을 가장 싫어 하도다./泉石에 묻혀 사는 생애에 티끌 세상의 근심은 적고/이 가운

當 面을 表示한 것이다.

64) 西湖 林處士: 林逋. 宋 隱士. 西湖 孤山에 살며, 20년간 市井에 내려가지 않고, 梅鶴을 사랑하며 지냈으므로 宋 蘇軾이 西湖處士로 命名하였다.

데 참 境地를 누워서곰 이웃할꼬?)

明月入我戶 獨坐鳴瑤琴 萬籟自寥寂 悠然中夜心(卷3, 月夜) 237a (明月이 내 방에 들에/홀로 앉아 瑤琴 타니/ 세상 온갖 소리 절로 고요하고/ 悠然히 한 밤 중 마음이로다.)

月下瓶笙和玉琴 清絃閒弄碧桃陰 千秋復愜鍾牙興 不在聲音只在心(卷3, 題畫屏花前聽琴) 242c (달 아래 향아리와 생황은 거문고와 어울리니/碧桃나무 그늘에서 거문고 한가로이 쓰다듬도다./千秋 지난 오늘에 鍾子期和 伯牙의 흥이 다시 어울리니./聲音엔 있지 아니하되 오직 마음엔 있도다.)

勳名此世似炊沙 萬事悠悠奈老何 悟道高僧心有定 出塵間客興無涯 晨暉射殿明金彩 殘雪黏峯鬪白紗 齋罷禪房鐘梵息 洞門松檜舞神鴉 (卷2, 次權生尙遠) 221b (이 세상 功名은 모래 앉힌 밥인양 헛되니/萬事 悠悠히 늙어 감이 어떠하뇨?/도를 깨친 高僧은 그 마음 고요하고/티끌새상 떠난 間客 그 흥 끝 없으라./아침 햇살 비친 佛殿 금빛이 눈부시고./ 山峯에 얼룩진 자취는, 白紗와 그 빛 겨루도다./齋 파한 禪房에 梵鐘 소리 그치고/洞門의 솔과 회나무에선 까마귀 춤을 추네.)

2) 病吟

韶華長度病吟中 雙鬢年度已作翁 卻憶少時行樂事 春山依舊杜鵑紅 (卷 3, 春日偶書) 242d (봄빛 화창한데 오래 病吟中에 있거니/두 줄 살쩍, 이미 늙은이 되었구나./돌이켜 少時적 行樂事 생각하니/春山은 의구하고 두견화 붉구나.)

病翁閒坐翫天機 終日無人叩竹扉 黃卷丹爐殊自適 有時書興管城揮 (卷3, 臥病二首 1) 242b (병든 늙은이 한가히 앉아 天機를 살피거니/날이 맞도록 竹扉 두드리는 이 없으라./黃卷과 神仙爐, 나와 절로 어울리고/때로 글 쓰는 흥으로 붓 휘둘러라.)

病久經年臥 朋來盡日談 吾身雖藐藐 天地亦參三 (卷3, 立春) 237b (병으로 여러 해 자리에 누웠더니/벗이 음에 종일 이야기하였네./내 몸이 비록 초췌할찌라도/하늘·땅과 함께 三才의 하나에 들리라.)

滿園紅紫錦薰天 無限韶華惱眼前 何事伊人病爲伍 杜門斂枕過年年 (卷3, 春風問) 244a (동산 가득 울긋불긋 하늘에 향기 끼치고/봄빛 그지없으니 눈 앞이 괴로워라./어쩌다 이 사람은 病者의 짝이 되어/문 닫고 베개에 기대어 年年이 지내느고.)

3) 友人情

老星輝入小窗邊 勞問呻吟荷見憐 空愧半生虛送日 共論先契忝忘年 八旬逾健寧須杖 十里徐歸不用鞭 安得靈丹蘇病骨 月潭同泛釣魚船 (卷3, 謝琴奉事丈憬見訪) 232d (老星<南極星> 빛이 작은 창가에 들에/공공하며 어렵스리 묻거니 짚어진 짐 가없어라./반생을 헛되이 보냄을 부끄러며/한가지로 先代의 交分을 얘기ㅎ더니 차마 나이 잊었구나./八旬 넘어 건강하니 지팡이 짚고/十里길 서서히 돌아가 되 채찍 쓰잖네./어디서 靈丹 얻어 病骨을 되살려/月潭에 한가지로 고기 낚을 배 띄울꼬.)

相思百里歎離居 衰鬢皤然野鶴如 末路情親流輩罕 少年遊戲老來疎 華緘入手驚初定 清藻醒心病欲除 知有吟筇尋水石 預教童隸掃園廬 (卷3, 次權子與點) 234a (서로 그리며 백리 떨어져 삶을 한탄하노니/성근 머리카락은 희어 들두루미 같도다./노경엔 정다운 벗 드물고/어린 시절 즐긴 놀이도 늙어선 소원ㅎ도다/그리운 글월 받고 놀랐으나 마음 가다듬고 읽어보니/맑은 글발 내 마음 일깨우고, 病苦를 물리칠듯/詩句 읊으며 지팡이 짚고 水石을 찾아가/童子로 園廬를 掃灑ㅎ게 하노라.)

悠悠萬事付天公 醉後不知西復東 大嶺雪飛撈勁栢 晴空日出捲陰虹 梧桐此日鳴祥鳳 雷雨何年起臥龍 千里分攜君莫歎 男兒無處不相逢 (卷2, 次權生尙遠韻贈柳季華) 221a (悠悠히 萬事를 하늘에 부치고/술 취한 후엘랑 西도 東도 아지 못하노라./큰 고개에 눈 날려도 억센 잣나무 뺨치고 섰고/맑은 하늘에 해 나오니 무지개 자취없도다./이 날 오동나무에서 봉황새 울고/雷雨는 어느 해에 臥龍을 일깨울 것가/그대와 나뉘 천리길을 한탄치 말지니/男兒로 만나지 못할 곳이 어디 있으랴!)

4) 歎老

疇昔孩提膝下章 居然今作白頭翁 昊天恩德知難報 生日情懷痛不窮 病挾至愚孤厚望 身將諸子泝遺風 依然三十年前事 獻壽高堂若夢中 (卷3, 生日) 228b (그 옛날 아버이 슬하의 철부지 어린것이/지금은居然히 머리 센 늙은이 되었구나./하늘 같은 은덕 보답 못함 생각하니/생일의 情懷가 더없이 비통ㅎ도다./병들고 못난 이 몸 아버이 바라심 저버렸으나/장차 先賢들의 沂水 遺風 추구하리라./의연히 30년 전 일을 따라/高堂께 獻壽하니 꿈속 같도다.)

寒食家家晝掩門 東風吹暖鳥聲喧 松楸⁶⁵⁾有感春將暮 梅柳爭妍景欲繁 老去光陰如疾箭 病餘蕭索負清樽 村蔬淡味偏宜我 愛看青蔥漸滿園 (卷3, 寒食) 222a (寒食날 집집마다 낮에 문 닫고/따뜻이 東風 불제 새 소리 요란해라./무덤가의 松楸, 유다른 느낌 줄 제 봄 바로 저물어 가고,/매화와 버들, 예쁨 서로 다투는 경 대견ㅎ도다./늙어감에 光陰은 살 달리듯하니/병후의 쇠한 몸 술 멀리 할지니라./시골 채소 담박한 맛 나에겐 좋고./동산 가득 뻗어가는 푸른 과, 보기에 사랑스러워라.)

辛夷⁶⁶⁾初發柳微黃 嘯⁶⁷⁾鳥司春晝刻長 猶著冬衣憐病況 正逢寒食感年芳 東風長物無恩怨 末俗隨時有抑揚 每歲杜門佳節過 永懷先壟淚成行 (卷3, 寒食) 234d (白木蓮 필 제 버들은 누릇하고/새 울음에 봄낮은 길어지도다./여태 겨울옷 입은 이 몸의 病症이 가련ㅎ거니와/바로 寒食 만나 꽃다운 절기 느끼도다./東風 부는 세상엔 恩怨이 없건만/末俗은 時勢 따라 抑揚이 있구나./해마다 문 닫고 佳節을 보내며/길이 先壟을 그리며 눈물지도다.)

歲時蕭索似常時 村巷寥寥隙駟移⁶⁸⁾ 岐路萬千知孰悟 行年六十奈吾衰 餘生欲勉須無畫 舊事難追只入詩 殘雪小蹊明暮景 獨將閒趣燃霜髭 (卷3, 歲時) 235a (歲

65) 松楸 : 墓에 심는 나무.

66) 辛夷 : 白木蓮

67) 嘯 : 啼

68) 隙駟移 : 駟過隙과 같다. 駟馬가 壁틈의 저쪽을 빨리 달려감. 세월의 흐름이 매우 빠름에 비유한다.

時라도 쓸쓸함이 常時와 같고./시골 마을 고요한데, 덧없는 세월은 빨리도 가네./갈래길을 萬이라 千이라 하니 뉘라서 깨달아 알리오./지내온 나이 60에 나는 어찌 쇠하였노./餘生을 힘쓰고자 하되 피함이 없고./옛날에 하던 일 따라가기 어려우매 다만 詩에 들 뿐이로다./눈 남은 오솔길에 저녁 풍경 밝고./혼자 한가로이 서리빛 옷수염 부비고 있다네.)

5) 詩·酒·琴

夜入江城玉宇清 數聲長笛動幽情 興來揮筆詩千首 歲去消憂酒一觥 鼎鼎光陰身易老 紛紛世道志難平 沈吟散步成佳趣 霜月妍妍隔樹明 (卷3, 月夜偶吟) 232c (江城에 밤이 드니 玉宇는 맑고./數聲 긴 피리 소리에 그윽한 情 일도다./興 나는 대로 붓 휘두르니 詩 千首라./한 해가 감에 근심 지우려 뽕잔에 술 기우리도다./流水같은 光陰에 이 한 몸 쉬 늙고/어지러운 세상 길 뜻 펴기 어려워라./고요히 詩 읊으며 산보하니 아름다운 풍취 절로 일고/서리달<음력 7월> 고옴게 나무 사이에 밝았더라.)

上元終夕雨昏昏 天宇初晴日色溫 淨放新春烟景媚 快消陰悚水聲喧 詩情不減年年曆 農事將興處處村 病裏猶欣罇滿醪 此生隨分謝乾坤 (卷3, 上元後二日快晴) 232d (대보름 온 저녁 비 오며 침침 ㅎ더니/하늘이 개이고 날빛 따듯하여라/싱싱한 新春에 내 끼인 景 아름답고/응달의 얼음, 자취없이 녹아 물소리 요란하구나./詩情은 해 거듭할수록 줄잡고/農事는 곳곳 마을마다 흥성 ㅎ도다./病中이나 마음 기뻐 동이 술 가득 채우고/이 생의 分數 따라 하늘 땅에 感謝하노라.)

小溪深處晚烟紛 談屑霏霏酒半醺 通夕勝遊殊未洽 來朝更擬餞東君 (卷3, 次友人韻) 238c (작은 시내 깊은 곳에 불 피운 연기 늦도록 어지럽고/주고 받은 이야기, 화제는 그지없건만, 술 이미 半醉했구나./저녁 내내 勝景에서 놀되 흡족 ㅎ지 않으니/오는 아침에 東君<봄>과의 餞別 자리 다시 차려볼가.)

溪上杯行松影斜 和風淡淡滿村花 興來莫怕春宵短 乘月須尋有酒家 (卷3, 上舍兄及以志而實 俱珮壺 至會于盤石溪邊 德興及埯亦至 酬飲行杯 杏花初發 松月又上

口占一絶 丁巳) 238d (시내 위에서 주고 받는 술잔에 소나무 그림자 비끼고/和風은 淡淡하고, 마을은 꽃으로 가득, /興 겨워, 봄밤의 짧음 두려워 말지니/모름지기 달빛 타고 酒家 찾아가리라.) (上舍 兄과 以志, 而實이 술단지를 차고 盤石溪邊에 모이니 德輿와 埜도 와서 함께 술잔을 주고 받았다. 살구꽃이 피기 시작하고, 소나무 위에 달이 또 올라, 絶句 한 수를 입으로 읊었다. 丁巳年의 일이다.)

鶯聲樹影午風和 佳節攜壺野老過 衰病年來雖不飲 夜深猶坐聽琴歌(卷3, 贈汝熙 1) 245b

(찌꼬리 소리, 나무 그림자에 낮 바람이 어울리는/좋은 계절에 술단지 든 들 늙은이 지나가도다./병으로 쇠한 몸이 年來에 비록 술 마시지 않았으나/밤 깊도록 앉아서 거문고 소리 듣도다.)

陶潛情話此時開 清夜厭厭未撤杯 病裏暢懷誠不惡 請君明日抱琴來 (卷3, 贈汝熙 2) 245b

(陶潛의 情話가 이 때에 시작되니/맑은 밤 고요한데 차마 술잔 물리지 못하네./병중에 품은 뜻 펴도 나쁘지 않으니./청컨대 그대는 明日에 거문고 안고 오라.)

6) 述志

紫菊妍妍秋意深 寒叢相倚夕暉陰 雖然外帶胭脂色 要識中含鐵石心 (卷3, 紫菊) 243c (아리따운 紫菊은 가을 뜻 깊거니/저녁빛 어두운, 추위 속에 꽃떨기 서로 기대고 있어라/비록 겉은 연지빛 띠고도/ 중심엔 鐵石 마음 머금었음 알리로다.)

白菊亭亭歲暮榮 梅爲兄弟雪爲精 西山餓魄⁶⁹⁾論貞節 商嶺彫眉⁷⁰⁾化皎英 (卷3, 白菊) 243c (울곧은 흰 국화 歲暮에 성숙거니/매화는 형제, 白雪은 精氣 되도다/西山(首陽山)에서 주려 죽은 魂魄은 貞節을 말하고/商嶺의 눈썹 흰 노인(彫

69) 西山餓魄 : 首陽山에서 고사리를 캐어먹다 굶어 죽은 伯夷와 叔齊의 의로운 넋을 가리켰다.

70) 商嶺彫眉 : 商嶺에 숨어 살았던 前漢의 四皓

眉)은 변하여 흰 꽃(白菊) 되었구나.)

功名與病不相謀 疎懶無成已白頭 從此明時爲野逸 不妨江上弄沙鷗 (卷3, 洛中書 2) 240c (功名은 病과 서로 圖謀치 못하나니/성글고 게을러 이룬 것 없이 이미 白頭 되었구나/이제부터는 밝은 시절에 野逸(野에 문힌 逸士) 되어/江上에서 갈매기 희롱함도 관찮으리라.)

7) 歎世

簾外雙飛送語音 去年巢處又來尋 人間背合朝昏異 微物猶存不二心 (卷3, 新燕) 245b (발 밖에서 짝지어 날며 서로 수작 주고 받는 저 제비/지난해 깃든 곳에 또 찾아왔구나/인간은 등 돌렸다 합하기 朝夕에 다르거니와/제비같은 미물이 되레 不二心 가졌구나.)

紛紛世變我何知 掩耳灰心任大癡 有興忽然成朗詠 白雲青嶂入新詩 (卷3, 贈金孝仲 四首 1) 239d (어지러운 세상변화를 내 어찌 알리/귀 가리고, 마음은 불 꺼진 재 삼으니 큰 바보되도다./흥이 일어 문득 詩를 읊어 이루니/흰 구름, 푸른 봉우리 그 詩 안에 들었도다.)

8) 民生苦

逋粟蠲除歲幾更 一朝嚴令勒民生 寒洲鴉落哀音苦 窮轍魚囁困尾楨 斗斛雖盈膏血盡 鞭敲交亂髮膚驚 可憐邦本搖縣旆 誰叩天關減此征 (卷3, 紀事二首 1) 232a (未納한 租穀의 免除를 한 해에 몇 번씩 하더니/一朝에 내린 엄한 令이 民生을 목 조이네./추운 물 가에 내려 앉은 기러기 애달피 우는 소리 괴롭고/물 마른 수레자국에서 헐떡이는 물고기 기진하여 꼬리 붉구나./租穀의 分量은 채웠으나, 膏血을 다 빨리고/채찍과 매질로 마구毆박하니 髮膚가 놀라네./가련ㅎ도다. 나라의 근본(百姓)이여, 깃발인양 흔들리도다./뉘라서 天關(關門)을 두드려 이 租稅 줄일꼬.)

里巷蕭條氣象淒 一邦無告納淤泥 羣生望絕斯須活 九族侵來遠近齊 倉粟入雲人怨積 牢囚仆雪哭聲低 財民聚散誰輕重 須念他時悔噬臍(卷3, 紀事二首 2) 232b
 (마을은 쓸쓸하고 처절한 기운 감도니/온 나라에 하소할 곳 없어 진흙탕에 빠졌네./못 백성의 잠간 살 희망조차 끊어지고/九族은 遠近없이 몰려 오네./구름인양 들어온 창고의 곡식은 백성의 원망이 쌓인 것이고, /간힌 囚人은 죽음으로 雪辱하니 뚝 소리 낮도다./가멸과 백성이 모였다 흩어지니 뉘에게 輕重 있으랴./마땅히 훗날에 뉘우쳐도 미치지 못함을 생각하라.)

剝松皮剝之何所爲 民命嗚嗚逼於死 亂後餘生遇今歲 通國饑荒無遠邇 官倉私廩糶升斗 火災車薪灑杯水 朝晡計窮無奈何 草木爲糧非得已 持斧腰鎌百爲羣 松林逐日紛如市 蒼官反受池魚殃 龍虎變白崩顛裏 脫盡虬皮勞復傷 血化黔膏流十指 家家布席曬日中 北里南巷渾如是 擣焉煮焉蒸可食 充腹還如粳稻美 飢腸所迫無不爲 可憐民窮胡至此 斯須活命由此物 樹木陰功猶有被 世無監門誰詛爾 世無鄭公⁷¹⁾誰拯爾 甲第聞來豈其然 盤中白粲珠相似 (卷1, 剝松皮歎) 204bc (소나무 껍질 벗겨 무엇할것가/입 벌려 벌름거리는 백성의 목숨은 죽음에 몰렸구나./난리 뒤에 남은 백성이 올해를 만나/온 나라가 遠近없이 주리고 황폐하였네./官庫와 私廩에서 되·말을 팔지만/불 난 수레의 쉼에 잔(杯) 물 담아 붓는 격이라./朝夕에 살아갈 길 궁하니, 어찌할 수 없고, /草木을 양식 삼아도 어쩔 수 없다./손에 도끼 잡고, 허리에 낫을 찬 이, 무리를 이뤘고/솔숲은 날로 저자모양 사람으로 들끓도다./松栢은 물 마른 연못의 물고기인양 뜻밖의 재앙을 만났고./龍虎인양 용틀임한 老松은 껍질 벗은 앙상한 몸채 금새라도 쓰러질 듯./솔껍질 모조리 벗겨진, 쓰리고 아픈 상처에서/피는 검은 송진이 되어 열 손가락에 흐른다./집집이 자리 펴고 별 쬐어 말리니/북쪽 마을 남쪽 거리 온통 이와 같도다./두드리고 찌고 삶고 하여 먹어/주린 배 채우니 맵쌀 맛 아니런가./주린 창자 다급하니 못할 일 없거니./가련한 백성의 궁함이 어찌 이에 이르렀는고. /잠시라도 모진 목숨 이 물건에 달렸으

71) 鄭公 : 鄭薰을 이름인 듯. 鄭薰이 노후에 隱巖에 거처하면서 소나무 일곱株를 뜯어 심고, 스스로 七松居士라 일컬어 '五柳先生'에 對比되었다. 南部新書曰 鄭薰既老號所居 爲隱巖 時小松七木于庭 自號七松居士 異時可對五柳先生(淵鑑類函 卷412, 木部 松2)

니./樹木의 陰功 입음이 이와 같구나./세상에 監門이 없으니, 누가 너를 살피며/
세상에 鄭公이 없으니 누가 너를 건지랴./일찍이 甲第로 익히 들어온 것이 어찌
그러하였던가?/이제사 알리라 盤中の 흰 쌀밥 珠玉과도 같음을.)

9) 戰亂 憂苦

河山千里未休兵 青草連天鼓角聲 野老不禁憂國淚 江春何事感人情 朋讎每羨諸年
少 花鳥空餘舊太平 杜曲詩篇千載暎 枕邊猶得病眸明 (卷3, 春日 4) 228a (千里
江山에 戰亂은 그치않고/ 하늘 닿은 草原엔 鼓角소리뿐/들 늙은이 나라 근심에
눈물 금치 못하고/봄 江에 人情 움직일 무엇 있는가?/한쌍의 술동이로 술자리
별이는 젊은이들 부럽고/꽃과 새들만 예대로 태평이라/杜甫의 曲江詩 천년을 비
치거니/비록 몸은 아파도 눈정기 밝도다.)

亂後相逢喜又悲 青眸凝淚爲傷時 身輕一死方爲勇 話到三更不解疲 病裏交親看漸
少 世間人事杳難知 花山⁷²⁾此去崇朝邇 無惜壘篋數數吹 (卷3, 贈鄭府伯君則世規)
236a (亂 뒤에 서로 만나니 기쁘고 또 슬피라/맑은 동자에 눈물 고이니 마음
쓰려라./한 몸 가벼이 여겨 싸워 죽어 용사 되니/그 이야기 三更 되도록 피곤치
않네./병 가운데 사귀 친구 점점 볼 수 없으니/세간의 인사 아득하여 알 수 없
구나./花山은 이를 떠나 아침에 닿을, 가까운 거리./ 질나팔에 저<피리>, 아낌없
이 자주 자주 불어라.)

亂中肯念歲華遷 不覺明朝又一年 老匪所嗟嗟世亂 人於何恃恃天憐 罇罍樂事少時
憶 鼓角哀音深夜傳 賴有銀釭二字欠意 寒窗相對未成眠 (卷3, 除夕) 236ab (亂
中에도 歲華 옮겨감 생각하더니/맑은 아침에 또 한 해 온 것 미처 깨닫지 못했
구나/늙은이 嗟歎하는 바 이 아니요, 세상 난리니./사람이 무엇 믿고, 하늘의
가없이 여김 믿는고/술동이 별이고 즐기던 少時적 일 생각하니/鼓角의 슬픈 소
리 深夜에 전해온다./은 향아리 있음 믿고…〈2字 缺〉…추운窓 서로 대하고 잠
이루지 못하노라.)

72) 花山 · 安東의 古稱.

10) 鄉村 情景

紙窗燈火照虛明 窗外寥寥月色清 誰識山家幽興味 夜深猶有讀書聲 因兒輩讀書 賦此 (卷3, 紀事) 241a (紙窓에 등불 흰히 비치고/창 밖에 쓸쓸히 달빛 맑도다./누리라서 山家의 그윽한 興趣 알라만/밤 깊어도 글 읽는 소리 이곳에 있도다. <아이들의 讀書로 말미암아 이를 읊었다.>)

烟橫村路少人行 何處清砧擣月明 午夜寂寥羣動息 小窗惟有讀書聲 (卷3, 冬夜四首 3) 243b (안개 가로 비긴 시골길에 행인은 적고/어디서 두드리는가, 달 밝은 밤에, 맑은 다듬잇소리, /오밤중 적막한데 못 짐승 잠잠히 쉬고,/ 작은 창에 선 오직 글 읽는 소리로다.)

辛夷⁷³⁾一樹傍巖隈 蠟藥妍妍雨裏開 世亂春光猶不改 東風處處角聲哀 (卷 3, 辛夷) 240d (바위 곁에 白木蓮 하나/비 속에 꽃술 예쁘게 열렸네./세상은 난리라도 봄빛 여전하고,/東風 따라 곳곳에 뿔피리 소리 애달파라.)

韶華如錦照溪流 日午晴絲蕩蕩浮 老憶少時騎竹戲 病逢多難對花愁 尋眞會入桃源洞 攬景思遊杜若洲 鰈域⁷⁴⁾戈矛猶未偃 疲民何計事西疇 (卷3, 書懷) 230a (화창한 봄빛 비단결인양 계곡 물 비추고/한낮의 微風이 和氣 차도다/나이 늙어, 어렸을 적 竹馬 타고 노던 일 생각하되/병 만나 어려움 많으니, 꽃 보아도 근심이로다./眞人을 찾아 우연히 桃源洞에 들어가/仙境을 살피 杜若洲에서 놀기 생각하되/우리 나라에 전란이 그치잖으니/지친 백성이 어찌 西疇(田地)에서 할 일 피하리오.)

逐日連宵不絕聲 翻江倒海瀑流鳴 怪來天上何多水 虛卻人間久望晴 鬱鬱孤齋懷萬感 昏昏八表病羣生 請君耐了須臾苦 潦霽相乘理自明 (卷3, 連雨書事 2) 227a (날마다 낮과 밤에 빗소리 그치잖으니/강은 뒤집고 바다는 쓰러질듯 폭포인양 울부짖도다/이상도 하다. 하늘은 어이하여 이다지도 많은 물을 내려/날 맑기만 기다리는 人間의 간절한 소망 헛되어 물리치는고/답답한 외로운 방에서 萬感에

73) 辛夷 : 白木蓮.

74) 鰈域 : 우리 나라의 別稱.

사무치나니/어두운 八方の 병든 羣生이여/청컨대 그대는 暫間の 괴로움일랑 참으시오./장마비 개이고 清明해지리니, 그 이치 자명하도다.)

早暮重陰塞太空 幾回瞻仰禱天公 焦乾河海疑無日 吹散雲霓咎在風 前歲爲災今歲甚 一方推類四方同 田廬更切憂民念 堪笑迂愚白髮翁 (卷3, 憂旱) 233d (일찍 저문 하늘은 어둠에 가리고/몇번이고 우리러 하느님께 빌도다/그 넓은 河海를 바짝 말리는 데도 하루 안걸리겠고/구름과 무지개 날려서 흩어지니 바람의 탓이로다/지난해 旱災더니 올해 더욱 심하거늘/한 지방 사정으로 미뤄 사방도 같으리라./농가 살림 절박하니 백성이 염려로다/얼뜨고 미련한 백발 늙은이 차마 웃도 못하네.)

烈烈烘爐萬命艱 昭回雲漢舉頭看 人間赤子心如灼 天上靈仙淚亦乾 (卷3, 七夕無雨 時人旱) 241c (활활 타는 화로<태양>에 만 목숨이 어렵고/밝게 순회하는 은하수 머리 들어 보도다/人間 赤子の 마음은 불 타는 듯하건만/ 천상의 神仙은 눈물 또한 말랐도다.)

11) 民俗

臘酒⁷⁵⁾浮春向滿觥 雪窗明燭敘閒情 彭尸⁷⁶⁾已屏庚申醉 老兎⁷⁷⁾能供子夜清 佳景爽襟詩思湧 高談抵掌睡魔驚 參橫未覺寒更盡 坐聽鄰雞喔喔鳴 (卷2, 臘月庚申夜 飲口占) 222a (臘酒를 봄날에 뜨니 그 향기 술잔에 차고/雪窓에 밝은 燭불, 그 뜻 한가하구나./ 彭尸는 물러나 庚申날 밤에 취하고/ 老兎<달>는 子夜의 맑음을 주네./아름다운 夜景이 상쾌하여 깃을 여니 詩思가 솟고./高談하며 손뼉 치니 睡魔가 놀라도다./ 參星이 가로 누운 黃昏 때 추위 다시 다함 깨닫지 못하고/앉아서 이웃 닭의 꼬끼오 우는 소리 들도다.)

75) 臘酒 : 설달에 빗었다가 봄에 封氷을 열고 마시는 술.

76) 彭尸 : 道家說로, 人體 안에 있어, 害를 끼친다는 별레로, 庚申날 밤에 나와서 사람의 陰事를 天帝에게 告發한다는 三尸蟲은 이것이다.

77) 老兎 : 새 이름. 두 귀 위에 毛角이 있어 토끼 머리와 비슷하고, 밤에 사냥을 한다. 여기서는 달의 異稱.

途中初度感懷深 長憶劬勞淚不禁 幼日幾經湯餅會⁷⁸⁾ 茲辰辜負奠杯斟 兒年向老唯安分 時事無涯不稱心 秋渚憩驂頻極目 故鄉迢遞隔千岑 (卷2, 初度有感) 223b (타향에서 환갑 맞은 인생이 감회 깊으니/날 낳아 길러주신 어버이 수고, 생각 하니 눈물 금치 못하여라./어린 날에 湯餅會 몇번이나 지냈던고?/이 날(생일)에 잔 올리기 저버렸도다/아들의 나이 들어가며 오직 分에 순종하건만/ 時事는 끝 없이 마음에 맞지 않네/가을 물가에서 쉬는 말 자주 눈길이 가고/고향은 아득히 천 봉우리 격하였도다.)

此身已與病爲羣 世事年來絕不聞 天外冥鴻凌倒景 空中蒼狗任浮雲 林泉寂寞時將暮 燈火青燐夜欲分 儺鼓鞦韆除夕近 兒童追逐戲紛紛 (卷3, 歲暮 2) 229bc (이 몸이 病과 한 무리 되고 보니/세상일 줄곧 듣지 못했네./하늘 밖 멀리 기러기 석양에 넘나들고/空中엔 푸른 구름 절로 떠도네/적막한 林泉에 해 저무니/등불 파랗게 비치고 밤은 나래 펴도다./驅儺의 북소리 똥똥 울리고 除夕이 가까우니./아이들은 쫓고 쫓기며 어지러이 놀도다.)

東俗傳來久 流頭自古因 時羞粉團冷 霽色玉輪新 擣麥村謳亂 傭耘巷語親 軒窗煩惱滌 清夜最宜人 (卷2, 流頭日) 214a (우리 민속은 전해오기 오래니/流頭는 예로 말미암았도다/절기 음식 粉團은 차고 / 개인 하늘에 둥근 달 새롭구나./보리 두드리며 부르는 마을 노래 어지럽고 / 밭갈이 품 이야기 주고 받는 마을 풍경 정겨워라./ 軒窓에서 煩惱를 씻으니/맑은 밤이 가장 좋아라.)

寒食春天草似苔 山花含蕾未全開 東風習習吹微雨 薄暮人家拜婦迴 (卷3, 寒食) 241b (寒食은 봄날씨같고, 풀은 이끼갈거늘/산꽃은 봉오리 머금고 아직 피지 않았다./東風은 살살, 가랑비 불고/오스름녘 人家에 절하고 쓸며 돈다네.)

12) 逍遙遊

山名縱曰清涼山 我意天台卽茲處 一曲浩歌望羣峯 羣峯欲語竟不語 蕭郎⁷⁹⁾幾度

78) 湯餅會 : 아이를 낳은 지 3일 되는 날에 一家親戚과 親知를 招待하여 베풀던 自祝의 잔치 행사를 말했다. 湯餅筵.

79) 蕭郎 : 春秋 때 사람 蕭史. 簫를 잘 불어, 鳳鳴을 냈다. 秦 穆公의 딸 弄玉을 아내

過靑鸞⁸⁰) 阮肇⁸¹) 還疑逢豔⁸²) 女 俯視陰崖萬丈深 輕風颺颺吹衣舉 (卷1, 般若臺)
 204a (산 이름은 淸涼山이라 해도 /내 생각엔 天台 곧 이곳이로다./한 곡조 豪
 宕하게 노래하며 羣峰을 바라보니/羣峯은 말하고자 하되 끝내 말 않도다/蕭郎은
 몇 차례 靑鸞을 지나쳤던고?/ 阮肇는 도리어 고운 계집 만날까 의아해 하도다./
 응달진 언덕, 萬 길 깊은 아래 굽어보니/가벼운 바람에 옷 날려 들리도다.)

蕭疎山雨灑還止 颯爽林風吹不停 水碓飛泉春滾滾 夜殿搖鐸鳴泠泠 半嶺白輝殘月
 上 五更淸梵香燈熒 吟苦奈如詩思澀 夢回倍覺塵心醒 (卷1, 覺華寺 2) 203a (소
 슬한 산 비 뿌리다 그치니/산뜻한 수풀 바람 불어 그치잖네./물방아 찼는 飛泉
 에 공이 소리 울리고/밤 佛殿의 搖鐸 소리 맑구나/고개 중턱 흰 ㅎ더니 새벽달
 올라오고/五更의 淸淨 法堂엔 香燈 밝구나/애써 읊노라니 詩思는 땀고/꿈 깨고
 돌아오니, 티끌 마음 깨끗도다.)

摸壁穿行仄 攀梯歷上危 巖應神匠鑿 穴作玉龕奇 落日寄遐眺 孤雲來幾時 依稀王
 質斧⁸³) 想像洞仙棊 爲問兩板木 爾其知不知 (卷1, 淸涼風穴臺 臺在克一庵 世傳
 崔孤雲遊處 有板木二 卽坐牀) 195d (巖壁을 더듬어 좁은 길 뚫고 가서/사다리
 기어 오르니 아슬하구나. / 신령한 장인이 바위를 뚫어/구멍 내어 玉龕 만드니
 참으로 기이하다. / 해 질 녘 멀리 바라보니/孤雲은 몇 때나 이곳에 왔던고? /
 王質의 녹슨 도끼 방불하여/바둑 두던 神仙窟 상상하도다./兩板木에 묻노니/너
 는 그것 아느냐 모르느냐? <淸涼 風穴臺. 臺에 克一庵이 있다. 세상에 전하기
 를, 崔孤雲이 놀던 곳이라고 한다. 널빤지 두 쪽이 있으니, 이 곧 앉았던 자리

로 삼고, 鳳樓를 짓고, 玉에게 簫 부는 법을 가르쳤는데, 그 때에 鳳새가 와서 모
 이니, 玉은 이를 타고, 史는 龍을 타고 함께 昇去했다. (cf. 列仙傳)

80) 靑鸞...鳳凰의 一種으로 靑色이 질다.

81) 阮肇 : 後漢 사람. 永平中 劉晨과 함께 藥을 캐러 山에 들어갔다가, 두 女人의 마
 중을 받아 한 洞에 들어가 胡麻飯을 대접받고, 집으로 돌아왔던 바 그의 子孫은 이
 미 7世後로 내려와 있었다고 한다 天台의 사람들이 이를 廟祀하고 있다. (cf. 尙
 友錄, 15)

82) 豔 : 艷과 同字임.

83) 信安山有石室 王質入其室 見二童子方對棋 看之局未終 視其所執伐薪斧 柯已爛朽 遽
 歸鄉里 已非矣(虞喜志林) cf. 孫晉泰, 『朝鮮民族說話의 研究』, 乙酉文化社, 1946,
 p.68f.

라고 한다.))

昔日金生書鐵索 猶殘巨筆植如拈 窮攀始識瓊峯秀 遠見恒疑玉指尖 壓地雄深根自固 撐天峻極勢逾嚴 三杯七字吟豪氣 酒興詩情得兩兼 (卷2, 卓筆峯) 218ab (옛날 金生이 글씨 쓴 鐵索/아직도 巨筆로 남아, 손가락으로 집은듯 세웠구나./겨우 기어 올라서야 옥같은 봉우리 빼어남 알겠고/멀리서 보며 늘 玉人의 손가락인가 의심하던 뾰족한 뿔뿌리/땅을 누르고 힘차게 박혔으니 그 뿌리 절로 단단하고/극히 높이 하늘을 버티니 그 형세 더욱 엄연하구나./ 술 석잔에 일곱자 豪氣있게 읊으니/술 마시는 興과 詩 읊는 情 들을 곁했구나.)

13) 憶往昔

高樓曾別幾經年 陳迹分明在眼前 黃鶴一篇詩獨在 碧雲千里信誰傳 蒲辰臥病書窗下 樹影陰濃畫棟邊 亂後凝翠樓尚無恙 樓前多老樹 更憶少時芒屨穩 捷如飛鳥上鞦韆 (卷3, 凝翠樓福川大門樓也 往在丙戌端午 先君子與客觴其上 作詩云 天涯偶見兩同年 吳价·羅恢 罇酒追思十載前 離語已因歸客詠 情杯又向故人傳 吳公先歸 羅公留 登樓細雨端陽節 倚柱輕風落照天 醉裏從教學仙侶 綠楊陰下戲鞦韆 當時余以童子侍側⁸⁴) 今到己巳端午 已四十四年矣 慨然興感 敬步其韻) 231bc (높은 다락에서 일찍이 이별한 지 몇 해나 지났던고/옛 자취 분명히 눈 앞에 있구나/黃鶴詩 한 편만 홀로 남아 있고/푸른 구름 밖 천리길에 뉘 있어 소식 전하리/부들 나는 때<蒲辰: 陰5월, 端陽節>에 病 들어 누워, 창 밑에서 쓰나니/나무 그림자는 단청빛 용마루가에 그늘 질구나/다시금 소시적 생각하니 짚신 참 편안하였거니/나는 새인양 날쌔게 그네 났도다.) (凝翠樓는 福川의 큰 門樓다. 지난 병술 단오에 선군께서 손님들과 그 위에서 술자리를 베풀었던 바 시 짓기를, “하늘 끝에서 우연히 두 동갑 친구<吳价와 羅恢> 만나/동이술 마시며 10년전 일 회상하도다./이별의 말은

84) 溪巖의 先親 富倫이 同福縣監으로 간 것은 1585년(宣祖18) 가을로, 이 때 溪巖은 9세의 幼沖한 나이로 그곳에 따라갔다. 한번은 鄭介淸이 내방하였던 바 마침 富倫이 부재중이라 溪巖이 迎接의 禮를 각듯이 하여 그를 놀라게 했다고 한다. cf. 張弼基, *op. cit.*, p.viif.

이미 돌아간 객이 읊었으매/정 담은 술잔을 故人에게 전하노라<吳公은 먼저 돌아가고, 羅公은 머물렀었다.>/다락에 오르니 端陽節의 가랑비요/기둥에 기대니 바람은 가볍고 하늘은 낙조로다/취중에도 가르침 따라 仙友에게 배워서/머들 그늘 아래서 그네를 노도다" 당시 나는 童子로서 부친 곁에서 모셨었다. 지금은 기사년 단오니 이미 44년의 옛 일이 되었다. 쓸쓸히 느끼는 바 있어 삼가 그 시의 韻을 밟아 위와 같이 지었다.

(前略)…矧夫地之隔絕 歲之久遠 追思昔遊 何以爲情 余之客于福⁸⁵⁾ 尙矣 于時先公爲是縣 而余實長養于此 首尾凡四五年以故 戀戀之懷 雖鄉井 殆未是甚焉 每念灑應之暇 追逐羣兒 循街而上屋 騎竹而擊毬 巷無不踏 川無不浴 歷歷乎 俱在目中 依依焉 長入夢裏 距今二十餘載 音耗之難 有若秦吳 間有人傳 福川自經賊 非復曩日矣 所幸先公所建挾仙樓·淹留軒及鄉校俱無恙 而以不得聞其詳 恒自慊焉 苟非茲僧之至 誰使余日聞所未聞乎…(中略)…蓋先公之治 一切以誠心懇惻爲主 故當時固不關赫赫名 而去後之愛 深浹於人 至今皆曰 不可忘 追表之以寓慕想 不特堂屋之留異迹而已…(中略)…無窮之思 復爲短章若干篇…(後略)

一別福川經幾年 某丘某水渾依然 時時蝶夢自飛越 杳杳魚書⁸⁶⁾誰遠傳 往事不堪電過眼 今朝忽遇雲遊禪 風樞對爾話終日 長歎之餘題短篇 (卷2, 思福川贈僧智永 1) 216d (<전략>)…하물며 지역도 서로 떨어져 있고, 세월도 오래 멀리 흘렀다. 뒤미처 예 놀던 일 생각하니 그 어찌 정답지 않으랴. 내가 복천에 나그네 되었던 지는 오래 되었다. 그 때에 선공께서 이 고을 현감이 되셨고, 나는 이곳에서 오래 자랐는데, 이러구러 4, 5년이 된다. 그 까닭으로 그림고 그리운 회포는 비록 고향마을이라도 이보다 더할 수가 없을 것이다. 집안 소제와 어른 섬기는 여가엔 매양 여러 아이들과 어울려 쫓고 쫓기면서 거리를 돌고, 옥상에 오르거나 죽마를 타거나 공을 치면서 놀기를 생각하였던 터이라 거리치고 아니 밟은 데가 없고, 시내치고 몸 담그지 않은 데가 없었다. 그 모든 것이 역력히 눈에 선하

85) 福 : 福川. 全羅南道 同福(今入和順)의 옛 이름. cf. 權相老, 『韓國地名沿革考(地名變遷辭典)』, 東國文化社, 1961, p.146

86) 魚書 : 書札을 이른다. 葛元見賣大魚者 元謂暫煩此魚 到河伯處 魚主曰 魚已死 元以丹書紙 內魚口中 擲水中 有頃 魚還躍上岸 吐墨書青黑色 如木葉而飛(汝南先賢傳)

다. 차마 저버릴 수 없어 길이 꿈 속에 들어오곤 했건만 지금껏 20여년간 소식 듣기 어렵기는 秦나라와 吳나라 사이와도 같았다. 간혹 전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복천이 賊亂을 겪은 뒤로는 그 사정이 지난날로 돌아갈 수 없었다. 다행히 선공께서 세운 挾仙樓·淹留軒 및 鄉校는 모두 무고하되, 그 상세한 것은 들을 수 없었으므로 늘 찢딤지 않았다. 진실로 이 스님이 와 주지 않았다면 누가 내게 듣지 못했던 바를 들려 주었겠는가?…〈중략〉…대개 선공의 治道는 모든 것을 성심으로 懇惻함을 주로 삼았던 고로 당시에 이름을 빛냄에는 굳게 관여치 않으셨다. 그리하여 떠난 뒤에도 사랑이 사람들에게 깊이 두루 미쳐, 지금까지도 모두 잊을 수 없다고 하고, 뒤미쳐 이를 표하여 흠모하는 생각을 담았다. 특히 堂屋의 異迹을 머물러 두지는 않았을 뿐이다.…〈중략〉…그지없는 생각에 다시 짧은 글 약간편을 짓는다.…〈후략〉

한번 복천 떠나고 몇년이 지났던고/낮익은 산과 언덕 모두 예대로일까/때때로 꿈속의 나비 되어 날아가/아득히 멀리 누구에게 서찰 전할꼬?/지난 일 번개인 양 눈 앞을 스치고/오늘 아침 문득 雲遊 스님 만났다./바람 부는 격자창 대하고 종일 이야기하고, / 긴 탄식 끝에 詩 단편 짓노라.)

이상 溪巖詩 전반에서 주제별로 몇 번씩 선별하여 소개하였다. 7의 시세계를 이해하기에는 이것만으로 아직도 요원하다 아니할 수 없다. 다만 이와 같이 소루한 소개로써나마 우선 계암의 시인으로서의 면모의一斑이나마 살필 수 있었으면 한다. 본고는 시 각편에 대한 구체적인 논고를 유보하였거니와, 이는 필자의 後稿에 미루거나 뒤에 올 有志人의 과제로 남겨두는 바이다.

끝으로 溪巖詩의 詩語 驅使와 관련하여 독창적인 修辭와 表現이 돋보이는 詩篇을 골라 아래에 소개한다. 이미 앞에서 소개한 주제별 자료들과 함께 溪巖詩에 대한 文學 談論 전개에 한 契機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蒼髯寒露滴秋清 山氣微香日色晶 鶴唳響空催節候 龍根蟠地發精英 錦苔斑裏抽身出 針葉堆邊戴笠生 定是赤松遺餌化 肉芝何獨擅佳名 (卷3, 松蘿) 228d (푸른 구레나룻 수염에, 찬 이슬 방울지는 가을 맑은데/山 기운은 적이 향기롭고 햇빛

맑구나/하늘에 울리는 학 울음소리, 節候를 재촉하고/용틀임한 나무뿌리 서린 땅에 精한 꽃 피었도다./비단 이끼 아롱진 속에서 살며시 몸 빼어 나와/솔 잎 쌓인 언저리에 갓 쓰고 태어났구나./이는 정녕 赤松子 끼쳐 준 먹이려니/너 어찌 靈芝란 좋은 이름 독차지했더뇨?)

路上停鞭獨愛看 亭亭擎蓋老蒼官⁸⁷⁾ 夏天草木渾無別 須把堅貞待歲寒 (卷3, 路傍松) 237d. (길 위에 잠시 말 멈추고 홀로 그윽히 너를 보나니/우뚝 傘蓋 받들고 선 늙은 蒼官 완연하구나./ 여름날엔 풀 나무 어기 뒤엎켜 갈피잡지 못하나/곧은 마음 굳게 지켜 歲寒을 기다리라.)

輕風淡蕩霽天涼 江上青山掛夕陽 清浪打船林影亂 翠屏新月更催觴 (卷3, 濯纓潭放舟至汾江) 239a (가벼이 부는 바람 잔잔한데, 비 개인 하늘은 서늘하고./江上的 푸른 산엔 夕陽이 걸렸구나./맑은 물결 배에 치니 숲 그림자 어지럽고/푸른 숲 병풍 삼고, 새로 돋은 달 아래 술잔 다시 재촉하누나.)

秋波倒影碧搖搖 一葉扁舟蕩九霄⁸⁸⁾ 浦樹冥冥漁笛晚 江烟欲斂數峯遙 天影落水底 如在天 上 故二句云 (卷3, 秋江泛舟) 240a (가을 물에 거꾸로 비친 風景, 푸른 빛으로 흔들흔들/한 잎 조각배는 하늘을 홀러가누나./개펄의 나무는 어둑하고, 漁父의 피리소리 늦도록 그치잖네./江烟을란 거두고, 멀리 서너 산봉우리 바라보고자... 하늘 그림자 물 밑에 비쳐 보이니 마치 天上에 있는 것 같았으므로 위의 두 句에서 이를 말했다)

殘雷殷殷暮雲邊 雨後微香濕杜鵑 更愛小塘明似鏡 會看荷葉碧田田⁸⁹⁾ (卷3, 定止書堂口占) 240b (저무는 구름가에 은은히 울리는 우뢰소리./비 끝에 은근한 향기 杜鵑花에 젖어 들다./못 다시 사랑하노니 밝기 거울 같고/점점이 물 위에 떠 있는 푸른 蓮잎 보도다.)

87) 蒼官 : '소나무'를 이른다. 博物志 松曰蒼官(淵鑑類函 卷412, 木部 1, 松 4) 이 詩에서는 擬人化하고 있다.

88) 九霄 : 九天. 하늘. 九霄는 天의 아홉 分野를 말한다. 즉 神霄·靑霄·碧霄·丹霄·景霄·玉霄·琅霄·紫霄·太霄.

89) 田田 : 蓮잎이 여러개 水面에 떠 있는 모양을 형용하는 말.

林園秋晚葉平壇 拍地丁丁墜栗團 拾取如拳煨活火 碧烟消處蛻金丸⁹⁰⁾ (卷3, 秋園燒栗) 241d (수플 동산에 가을 저무니 나뭇잎 떨어져 壇으로 쌓였거니/땅을 탕탕 치니 밤송이들 떨어지누나/주먹만한 것을 주워 활활 불에 구우니/내 꺼진 자리에 허물 벗은 밤알이 달모양 나온다.)

IV. 맺는 글

溪巖 金垺은 광해난정 때 벼슬을 버리고 향촌에 내려가 '눈 뜨고 장님 행세'함으로써 곳곳이 절의를 지켰던 선비로, 이에 얽힌 口傳들이 민간에 꽤 유포되었던 터이다. 그를 존경하고 아끼던 조선의 民庶들이 구구전승하는 과정에서 누구라 집어 말할 수 없는 無意識 多衆에 의하여, 그의 행적이 扮飾, 加工된 것이 '눈 뜨고 장님 행세한' 김령의 설화가 아니었던가 한다. 門中에 전하는 문헌기록으로 볼 때 그는 일찌기 눈 뜨고 장님 행세한 일은 없었다. 다만 그가 身病을 이유로 나라에서 내리는 벼슬을 번번히 사양하고 향리에 은거하여, 세상과의 인연을 멀리하고 깨끗이 일생을 살다 간, 의로운 선비였다 함은 구전의 본뜻과도 다르지 않다. 당초 그는 광해군 4년에 문과에 합격하여 權知 承文院 正字가 되고, 3년 뒤 承政院 注書가 되었다. 그러나, 光海無道와 北人의 用事를 보고 관직을 그만두고 禮安으로 돌아갔다. 그 때로부터 그는 시골에 은거하여 벼슬하지 않았다. 仁祖反正이 되고 나서 그를 여러번 벼슬로 불렀으나, 이 때도 번번히 신병을 이유로 나가지 않았다. 그의 병을 거짓병으로 의심하는 축도 있었으나, 한동안 광해군 밑에서 벼슬한 때문에도 인조대에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그는 광해의 폐정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터이나 그렇다고 인조반정이라는 무력정변을 의롭다 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그의 절의는 伯夷와 叔齊에 비유되었다. 그를 일러 '嶺南第一人'(世稱)이라 했고, 또 '近代人物第一人'(東巖公)이라 일컬어

90) 金丸 : 달의 異名. 金鏡. 金盆

은 것⁹¹⁾을 보아도 節義人士로서의 世間の 인식은 결코 偶然 所致가 아니다. 그의 절의는 전통적인 유교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었으며, 특히 朱子學을 평생의 宗義로 삼고 있었다.⁹²⁾ 따라서 그는 華夷의 구별에 철저하여, 朝鮮을 小華의 禮義國으로서 壬辰倭亂에서 입은 明의 大恩을 잊지 않고 事大의 의리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 돼지와 같은 夷狄인 淸의 힘에 밀려 항복함으로써 더할 수 없는, 나라의 굴욕을 자초하고, 아울러 明에 대한 의리를 저버렸던 데 대하여 비분, 통탄하고 있다. 그는 시종 大義名分을 信條로 삼고 살았다.

溪巖의 병은 번번히 辭官의 구실이 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假病이라 하고, 참 병이라 하는 등 이설이 분분했다. 문헌기록을 보아도 혼란스럽다. 원래 그는 身弱한 體質을 타고 났던 성싶다. 따라서 잔병을 심심찮게 앓았는데, 당초 벼슬을 辭去할 때 이로써 稱病하게 되었는데, 관의 감시를 의식하며 隱居라는 自閉의 時空에 처신하게 되면서 참으로 신병을 앓게 되었던 것으로, 下部가 不仁했고, 나중에는 中風을 앓게 되어, 거동이 부자유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죽음을 3, 4개월 앞 둔 庚辰年(1640) 세모에 읊은 시에 아래와 같은 意味深長한 작품이 있다.

歲暮霜雪繁 山川晦寒姿 時光自不留 天意誰能知 擾擾羣物多 動息皆有時 冥觀消息理 何必懷深悲 中宵撫古琴 所賴唯鍾期 (歲暮에 눈 서리 잦더니./ 山川은 쌀쌀한 그 모습 감추었도다./ 光陰은 걸로 머물지 않으니/ 하늘 뜻을 뉘 능히 알리오?/ 어지러이 나도는 무리는 많으나./ 움직이고 멈춤에는 다 때가 있다네./ 고요히 세상 이치를 보니./ 어찌 반드시 깊이 슬퍼하리오?/ 한 밤에 옛 거문고 타거니./ 믿을 바 鍾子期⁹³⁾뿐이로다)⁹⁴⁾

91) 世稱嶺南第一人(仁祖實錄 卷28, 11年 癸酉 正月 辛丑). 東巖子閒居中 每以心語口曰 若論近代人物 溪巖公當爲第一人也(溪巖集 卷6, 題溪巖權 權雀吾)

92) 自中年 與世絕 學益專 道益修 最喜朱子書節要 有所疑 熟復玩之 不通解不已 無越踰輟誦 統先生平生 如所爲宗(溪巖集 卷6, 行狀 權愈)

93) 伯牙善鼓琴 鍾子期善聽 伯牙鼓琴 志在高山 子期曰 善哉 洋洋兮若泰山 志在流水 子期曰 善哉 洋洋兮若江河 伯牙所念 子期必得之(列子 湯問篇) 鍾子期死 伯牙破琴絕絃 終身不復鼓琴 以爲無足爲鼓者(呂氏春秋)

94) 溪巖集 卷1, 次鄭上舍榮邦韻

윗 詩에서 작자 溪巖은 한밤중에 거문고를 타고 있다. 이미 64세의 인생을 살아온, 고독한 老隱士의 거문고 타는 모습에서 웬지 머지 않은 거리에서 다가오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를 이미 感知하고 있는 듯한 그의 內面을 엿보게 하는 詩다. 悲感의 彼岸에서 觀照하고 있는 覺者의 그것과 같은 여유가 있다. 그의 마지막 詩에서 그가 平生을 앓아온 病狀은 씻은 듯 자취를 볼 수 없다. 鍾子期와 같은 知音者(溪巖의 경우는 먼 훗날의 참 知己者), 곧 未來의 知己者를 그는 期待하고 있지 않은가 싶다. 그는 스스로 救濟되고 있다.

과연 그가 앓았던 病은 무엇인가? 고요히 생각하게 하는 詩다.

溪巖이 참으로 앓았던 病은 肉身의 病이 아니다. 그 나라와 그 백성이 病들었을 때 大義에 살고자 하는 사람이 어찌 아프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가 진실로 앓았던 병은 '下部'도 '中風'도 아닌, 王을 비롯한 當代 執權層과 한 時代의 모든 成員들이 病들어 있음으로써 앓게 된 病이었다 하겠다.

'오늘의 우리 현실에서 과연 病을 앓는 志義의 人士는 존재하는가?'

溪巖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또 앞으로 올 우리 後代에게 부단히, 말 없이 물음을 발하고, 또 발하게 되리라고 믿는다. —자신의 '삶'과 '詩世界'를 통하여...

民族 正體性 回復의 當爲를 깨우칠 '百代의 스승' 溪巖의 存在를 照鑑하고, 그 眞面目의 一斑이나마 드러낼 수 있었다면 萬幸이라 여기고, 有志者의 叱正을 기대하며, 本稿를 마친다.

(2001년 11월 10일 脫稿)